

HD현대

HD HYUNDAI MAGAZINE

2025

SUMMER



HD현대의 길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열정을
바탕으로
도전을
이어가고,
작은 성공을
기반으로
더 큰 성공을
만들어 갑니다.

가능성의 바다를
가로지르는 길처럼
HD현대 임직원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HD현대 임직원을
응원합니다.

HD현대 여름호

발행일 2025년 7월 14일

발행처 HD현대중공업 문화홍보부

2025

SUMMER

FOCUS	HD하이라이트	04
HD INSIDE	HD 돌보기	10
	미래를 여는 HD	16
	오피스 인터뷰	18
	HD현대일렉트릭 전력해외영업부 영업2과	
	현장 스케치	20
	MADEX 2025	
	2025 서울모빌리티쇼, 바우마 2025	
	그날의 HD	24
	스타(★) 플레이어	28
	HD현대중공업 미르자모히드알리 사원	
	HD현대미포 허원석 기장	
	HD 업(業)데이트	30
	HD현대 건설기계 부문	
	미라클 HD	32
	메이크 어 위시 프로젝트	
	우리네 이웃	34
	HD아트센터 드림워크	
	HD SNS '픽'	36
	HD현대중공업 디지털 광고	
	HD현대오일뱅크 '오'늘도 '일'단 가봄	
	HD원정응원단	
	화제의 신간	39
REFRESH	인사이트	40
	건강 / 심리 / 트렌드	
	사랑을 나누시다	46
	로컬 재발견	48
	울릉도 여행	
	HD툰(TOON)	52
	사우 참여마당	56

가족愛 물든 HD현대의 특별한 동행

회사는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많은 아빠 엄마들이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두 눈에 담고 출근하며,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직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회사에서 느낀 보람과 자존감은
가정에서 가족들을 따뜻하게 감싸는 사랑으로 이어진다.
나 자신은 물론 가족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회사는 가정의 또 다른 이름이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HD현대는 각 계열사별로
임직원 가족들의 긍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했다.



임직원 자녀 위한 '키자니아 패밀리데이'



키자니아에 뜬 미래 조선

HD현대가 직원 및 자녀들을 위해 어린이 직업 체험관을 통째로 빌렸다. HD현대는 지난 5월 18일(일) 영남 지역에 근무하는 HD현대 직원 및 자녀 800명을 시작으로 키자니아 부산 '패밀리데이'를 개최했다.

총 3회에 걸쳐 2천 400여 명의 그룹 임직원들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HD현대가 지난 4월 키자니아부산에 조성한 브랜드 체험관인 '스마트마린센터' 개설을 기념해 마련됐다.

사우 자녀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키자니아 부산에서 총 54개의 직업 체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했다. 아이들은 특히 HD현대가 키자니아와 협업해 오픈한 '스마트 마린 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곳에서 자녀들은 전용 유니폼을 입고 친환경 미래 선박 엔지니어가 돼 선박을 만들어 보고 스마트 기술이 활용된 미래 모습을 체험했다.

선박 건조부터 운항까지, 아이 눈높이로 체험

선박 건조존은 미완성인 부품을 장착해 친환경 선박을 만들어보는 게임형 콘텐츠가 진행돼 아이들의 호응이 높았다. 자녀들은 완성된 선박이 명명식 및 세리머니 후 출항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한 얼굴로 함께 축하의 박수도 쳤다. 운항 체험존에서는 HD현대가 친환경 신기술로 만들어 나갈 미래의 모습을 영상으로 관람했다. 체험이 끝난 후에는 3D 입체 선박 퍼즐도 선물로 받았다.

이외에도 이날 사우 자녀들은 요리, 소방, 방송 등 다양한 직업 체험관을 이용하며 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패밀리데이에 참가한 HD현대미포 손성민 매니저(디지털혁신부)는 "지난해 말 사우가족 사내견학을 통해 온 가족이 회사를 둘러보는 기회를 가졌지만, 직무 하나하나를 설명하지 못해 매우 아쉬웠다"며, "선박 건조부터 명명식, 선박 운항까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직무를 소개할 수 있어 더욱 생생하고 흥미로운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스마트 마린 센터에 방문한 HD현대 임직원 자녀들





부모님과 함께한 특별한 회사 나들이

9년 만의 신입사원 부모 초청행사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신입사원 부모님을 초청해 자녀들의 첫 사회 생활을 함께 축하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HD현대중공업은 2016년 이후 9년 만에 '신입사원 부모님 초청 행사'를 다시 열었다. 조선사업부를 비롯한 여러 사업부 신입사원의 부모님들이 총 3차수로 나뉘어 울산을 찾았다.

지난 4월 25일(금)부터 이틀간 진행된 1차 행사에는 조선사업부 기술본부 소속 신입사원 29명의 부모님이 참여했다. HD현대중공업은 부모님들의 편안한 여정을 위해 호텔 숙박과 석식을 준비했고, 이틀날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본관 식당에서 자녀와 함께 아침을 나눈 부모님들은 회사 홍보영화와 아산기념 전시실을 관람하며 HD현대의 역사와 비전을 함께 살펴봤다. 이어진 야드투어에서는 조선소 곳곳을 돌아보며 자녀의 일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영빈관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는 경영진이 직접 부모님을 맞이했다. 일정은 대왕암공원 산책으로 마무리됐다.



신입사원과 부모님이
서로를 위해 준비한
영상편지와 손편지,
감사패와 명예사원증이
전달되며 행사장은 따뜻한
감동으로 물들었다.

자녀들의 근무 현장을
둘러본 부모님의
모습에서는 묵묵한
자부심이 묻어났다.

부모님과 함께 보낸 감동의 하루

HD현대미포도 지난 5월 '꿈을 잇다'라는 이름으로 신입 및 경력사원 부모님을 초청했다. 서울, 광주,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22가족 64명이 참여했다. 행사 전, 자녀가 준비한 영상편지를 함께 시청하며 부모님들의 눈가엔 금세 뜨거운 감동이 맺혔다. 이어 자녀에게서 직접 카네이션과 명예사원증을 받으며 오래도록 간직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부모님들은 회사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조선소 건조현장을 돌아보며 웅장한 선박 블록과 크레인의 장관을 직접 눈에 담았다. 자녀의 근무 현장을 둘러본 부모님의 모습에서는 묵묵한 자부심이 묻어났다.

회사는 먼 길을 오신 부모님들을 위해 호텔 숙박, 이동버스 지원은 물론 울산 명물인 '배빵', 무선충전기, 텀블러, 그리고 현장에서 촬영한 가족사진을 바탕으로 만든 캐리커처까지 정성껏 준비했다.

HD현대는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들과 더욱 따뜻하게 소통하고, 모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HD현대삼호

어버이날 맞이 부모님 초청 효도잔치



HD현대삼호가 5월 어버이날을 맞아 임직원이 부모님과 함께 회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HD현대삼호는 지난 5월 8일(화) 어버이날을 기념해 '2025년 부모님 초청 효도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임직원 부모님 400명을 초청해 열린 효도잔치는 야드 투어, 호텔 점심 식사를 포함해 각종 공연과 선물 증정까지 다채로운 구성으로 진행됐다.

김재을 사장은 "보람이 넘치는 회사, 꿈과 희망을 이루는 회사, 그리고 모두가 안전한 회사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면서 "경영진은 '사람이 우선'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부모님의 마음으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만난 소중한 가족



HD현대삼호가 가정의 달을 맞아 마련한 또다른 이벤트, 고향과 가족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의 향수를 달래고 소속감을 증진하기 위한 특별한 기회를 마련했다. 주인공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용접 업무를 맡아온 태국 출신 근로자 쌍아씨. HD현대삼호는 쌍아 씨를 위해 아내 두영웅 씨와 아들 빠까풍 군, 딸 찌라차야 양을 은밀히 초청했고, 이들은 지난 5월 7일(월) 한국에 입국했다.

깜짝 상봉은 지난 5월 8일(화) 생산관 1층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이뤄졌다. 평소처럼 쌍아 씨는 아무 것도 모른 채 외국인 근로자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도중에 깜짝 등장한 아내와 자녀들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다가 이내 눈시울을 붉혔다.

이번 초청 이벤트는 단순히 가족과의 만남이라는 의미를 넘어, 외국인 근로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장기 근속과 업무 몰입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HD현대삼호는 쌍아 씨 가족들이 5박 6일간 한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가족들은 도자기 만들기 체험, 목포 자연사박물관 관람 등 지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HD현대중공업

학교에 깜짝 방문한 멋진 우리 엄마아빠



사우 자녀들에게 진정한 히어로는 HD현대중공업에 다니는 우리 엄마, 아빠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HD히어로데이' 참가자를 모집해 최종 30명의 직원을 선정했다. HD히어로데이는 임직원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학급 친구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회사와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소개하는 특별한 행사다. 참여 대상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임직원이며, 학교 방문은 지난 6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술로 위축된 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다는 아빠, 파견 근무로 군산에서 울산으로 넘어간 탓에 아이의 성장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지 못한 아빠 등 히어로가 되고 싶은 각자의 사연이 담겼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행사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직원들은 자녀와 친구들에게 자신의 일을 소개하며 한층 더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임직원이 자녀 학급을 방문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70만 원까지 선물비를 지원하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

울산 HD FC와 함께한 가족과의 특별한 추억



HD현대일렉트릭이 울산 HD FC와 함께한 '2025 시즌 브랜드데이'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임직원 가족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HD현대일렉트릭은 2023년부터 매 시즌 울산 HD FC와 브랜드데이 행사를 열어왔으며, 올해 역시 임직원과 협력회사 직원, 그 가족 등 1천 100여 명이 함께 모여 응원의 열기를 더했다. 특히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특별한 하루를 선사했다.

행사장에는 가족 단위 참가자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졌다. 축구공 맞추기, 페이스페인팅 등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에스코트 키즈로 선발된 임직원 자녀 22명이 선수들과 함께 입장하는 특별한 순간도 마련됐다. 어린 자녀들이 선수들의 손을 잡고 경기장에 들어서는 모습은 관중들의 큰 박수를 받으며 가족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전 참가자에게 'Transformation For All - 우리의 기술, 모두의 혁신' 슬로건이 새겨진 응원 티셔츠를 제공하고, 닭강정 등 간식과 응원도구를 나누며 가족 단위 응원의 열기를 북돋웠다. 또한 울산동부소방서 소방공무원 25명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도 가졌다.

HD현대, 한·미 '조선·해양 동맹' 이끈다

미국의 조선산업 재건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HD현대가 한국과 미국 간 조선·해양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섰다.

기술 협력은 물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까지 민간 차원의 실질적 논의가 추진되며, 양국의 해양 산업을 잇는 '지식 동맹'이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한·미 조선협력 전문가 포럼 개최

HD현대는 지난 6월 24일(화)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한·미 조선협력 전문가 포럼'을 진행했다. 지난 2024년 7월 미국 현지서 'HD현대·서울대·미시건대' 3자간 체결한 '한·미 조선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협력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앞서 HD현대는 미국 정부의 조선산업 재건 의지와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혈맹이자 우방인 미국의 조선업 재건과 안보 강화 활동 지원을 위해 서울대 및 미시건대 등과 조선 인재 양성 사업을 함께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HD현대와 서울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이 포럼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미 양국 전문가들이 모여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실제 민간차원의 노력이 가시화된 것이어서 업계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조선 해양 동맹의 출발점' 선언

24일(화)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진행된 '한·미 조선협력 전문가 포럼'에는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앤드류 게이틀리(Andrew Gately) 주한미국대사 상무공사와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포럼을 이끌 전문가 집단으로 국내에서 서울대, 카이스트 등 7개 대학 교수들이, 미국에서는 미시건대, MIT 등 6개 대학 조선해양공학 교수들이 참석, 총 40여 명의 조선·해양 전문가들이 함께 했다.

이날 포럼은 정기선 수석부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정기선 수석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협력은 단순한

인적 교류를 넘어 한·미 양국이 조선·해양 분야 기술과 비전을 공유하는, 진정한 해양 동맹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양국 조선산업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함께 가자"고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의 기초연설이 이어졌다. 미국 측 기초연설자로 나선 미시건대학교 데이비드 싱어(David Singer) 교수는 "이처럼 거대하고 복잡한 선박들을 놀라운 속도로 건조해내는 역량에 경외감을 느낀다"며 "조선산업 재건을 위해서는 인재 확보가 필수인 만큼, HD현대와의 협력 확대는 미국 조선업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세션은 서울대로 자리를 옮겨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각 대학 및 기관별로 조선·해양 공학 교육 커리큘럼을 소개하고 운영 사례에 대한 상호 의견 교류가 이뤄졌다. 또한 인재 양성을 위한 한·미 간 공동 교육의 필요성과 육성 전략도 함께 논의됐다. 포럼 마지막 날인 25일(수)에는 '스마트 야드' 등 양국 간 공동 연구 주제가 심도 깊게 다뤄졌다.

앞서 미국 측 참가자들은 지난 6월 23일(월)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방문, 상선 및 특수선 야드를 둘러보고, 스마트조선소 구축 및 자율운항 선박 기술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한·미 조선협력 전문가 포럼' 2회차 행사는 올해 10월 미국에서 개최된다.



전력산업 판을 바꾼다 : 'PowerUp HDE' 출범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구축,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전력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기술 확보가 산업계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이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전력기술 스타트업 발굴에 나섰다.

미래 전력산업 선도할 스타트업 발굴 시동

HD현대일렉트릭은 지난 4월 28일(월),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블루포인트, 플러그앤플레이 코리아와 함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PowerUp HDE' 킥오프 행사를 개최했다. 이 프로그램은 차세대 전력,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전력 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HD현대일렉트릭은 지난 6월부터 스타트업 모집에 본격 돌입했으며, 향후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집 분야는 차세대 송·변전 기술,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 IT·AI 기반 디지털 솔루션,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전력 기술 등, 미래 전력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 전반을 포괄한다. 선정된 스타트업에는 HD현대일렉트릭의 실증 테스트베드 활용, 기술검증(PoC), 공동개발, 장기 파트너십 연계, 투자 검토 등 실질적인 사업화 기회가 제공된다.

특히 실증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의 단순 투자 중심 오픈이노베이션과 차별화된다. HD현대일렉트릭 실무진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와 스타트업이 직접 협업하며, 실질적인 현장 적용과 기술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신기술의 사업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전략이다.



사내벤처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 결집

HD현대에는 사내벤처 프로그램 '드림큐브-S'를 통해 이미 도전적 기업 문화를 내재화해왔다. 2020년 출범한 아비커스(Avikus)는 드림큐브 1호 사내벤처로 출발해, 현재 선박 자율운항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경험은 이번 PowerUp HDE 프로그램에도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단순히 외부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사내 기술역량과 스타트업의 혁신기술이 시너지를 내도록 협력 체계를 설계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스타트업 육성 전문 글로벌 파트너가 참여한다. 국내 스타트업 발굴을 맡은 블루포인트는 초기 기술 스타트업 투자 및 육성 전문 기업으로, 다수의 대기업과 협력한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전반을 운영한다.

해외 스타트업 발굴을 담당하는 플러그앤플레이는 실리콘밸리를 기반으로 전 세계 60여 개 지사와 6만여 개 스타트업 풀을 보유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다. 이들은 글로벌 스타트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HD현대일렉트릭의 전력기술 혁신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건설기계 시장 판도 바꿀 스마트팩토리의 탄생

HD현대건설기계가 지난 5월 20일(화)
'울산캠퍼스 스마트팩토리' 준공식을 개최하며
글로벌 건설기계 생산 허브의 문을 열었다.

3년여 '선진화 프로젝트' 결실

HD현대건설기계는 지난 2023년부터 약 2천억 원을 투입하며 설비 고도화와 생산능력 확대 등을 위해 기존 울산공장을 재정비하는 '선진화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총 23만 4,710㎡(7만 1천평) 규모의 기존 부지 내에 위치한 1공장과 2공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설비 개선 및 운영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생산라인 증축과 재편 ▲품질확보센터 및 입고동 신축 ▲사무동 신축 등을 통해 울산공장을 스마트팩토리로 탈바꿈시켰다.

이날 준공식에는 HD현대 권오갑 회장,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사이트 솔루션 조영철 사장, HD현대건설기계 최철곤 사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노동조합 임영모 지회장, 임직원, 국내외 딜러, 협력사 및 고객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스마트팩토리 구축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또한 '스마트팩토리 생산 1호기 전달식'도 진행돼 40톤급 차세대 신모델 굴착기와 125톤급 초대형 굴착기, 35톤급 대형 휠로더 등 총 5대가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인도네시아의 주요 딜러사에 인도됐다.



AI, 로봇 등 혁신 생산 기술 전격 도입

HD현대건설기계는 통합공장 체제로 생산·물류 라인을 일원화하고, 전 공정에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공정 흐름을 최적화하고 생산 효율을 극대화했다.

또한 제관 부품 제작 라인에서 용접 로봇과 비전 센서를 적용함으로써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건설기계 조립 라인에 무인운송차량(AGV, Automated Guided Vehicle)과 AI 품질 검사 시스템을 도입해 자동화 공정의 비중을 높였다.

이를 통해 작업자의 노동 생산성은 약 20% 향상되고, 제품 완성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35%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형부터 초대형에 이르는 굴착기와 휠로더 등의 연간 생산능력도 기존 9천 600대에서 1만 5천대로 56% 늘어난다. HD현대건설기계는 스마트팩토리로 거듭난 울산

캠퍼스를 글로벌 생산 허브인 '마더 플랜트(Mother Plant)'로 육성하고, 해외 주요 생산법인, 미국·유럽 현지에서 고객 주문에 맞춰 제품을 조립하는 커스터마이제이션 센터(Customization Center)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HD현대건설기계 울산캠퍼스 조감도

국내 산업현장의 친환경 전환에 앞장서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이 지난 4월 3.5톤급 수소 지게차 22대를 수주하고, 6월에는 국내 최초로 5톤 이상 중대형 전동 지게차 라인업을 선보이며 친환경 산업차량 분야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3.5톤급 수소 지게차 22대 수주

HD현대사이트솔루션이 지난 4월 한국건설기계연구원이 발주한 3.5톤급 수소 지게차 물량 전량을 수주하며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했다. 이번에 수주한 제품은 수소 지게차의 신뢰성 검증과 경제성, 안정성 평가 등 상용화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2026년 3월까지 진행되는 '수소 지게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 기반 신뢰성 검증' 국책과제 2단계 사업에 투입된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 3.5톤급 수소 지게차

미국 등 선진 시장에서는 이미 수소 지게차 상용화가 진행 중이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 그로스 인사이트(Global Growth Insights)에 따르면, 글로벌 수소 지게차 시장은 지난해 기준 6억 8천 360만 달러(약 9천 758억 원)에서 연평균 31.4% 성장해 2032년 74억 3천 957만 달러(약 10조 6천 19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 중대형 전동 지게차

‘국내 최초’ 중대형 전동 지게차 국산화

지난 6월에는 국내 최초로 출시한 5톤 이상 중대형 전동 지게차를 포함해 4톤부터 9톤급 전동 지게차 신모델 8종을 선보였다.

고성능 리튬인산철(LFP)배터리가 탑재돼 1시간 충전으로 최대 11시간 연속 가동이 가능하며, 고효율 영구자석 모터로 동급 내연기관 이상의 출력을 발휘한다. 중대형 제품에는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저속주행하는 ‘크립(Creep)’ 기능을 적용해 고중량물 작업을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비바람이 잦은 실외 환경을 고려해 ‘IP67’ 등급 이상의 방수·방진 설계를 적용하고 고강도 살수 테스트와 침수 주행 검증으로 신뢰성을 확보했으며,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으로 고온이나 혹한의 환경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는 점도 특징이다.

HD현대

통일과나눔 재단으로부터 감사패 수여받아

HD현대가 지난 5월 26일(월)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10주년 국민보고 대회에서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통일과나눔 재단은 '나눔이 통일의 시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15년 5월 26일 설립됐다. 설립과 동시에 출범한 '통일과나눔 펀드'는 지난 10년간 170만여 명이 참여해 국내 최대 규모의 순수 민간 통일 기금으로 성장했다. 펀드 설립 첫째, HD현대는 임직원 9천 569명이 펀드에 참여하며 단일 그룹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참여를 기록한 바 있다. 재단은 △ 통일 관련 각종 프로젝트 △ 국내외 통일 공감대 형성·확산을 위한 사업 △ 남북 통합 정책연구 등 통일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연구를 지원해오고 있다.



HD현대마린솔루션

글로벌 선사와 '엔진 개조 계약' 체결

HD현대마린솔루션은 올해 상반기 동안 글로벌 대형 선사와 선박 74척에 대한 메인 엔진 부분 부하 최적화(Engine Part Load Optimization, EPLO)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연내 150척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운항 선박 에너지 효율 지수(EEXI) 및 탄소 집약도 지수(CII), 유럽연합의 EU ETS(배출권거래제) 등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많은 선사들이 50~80% 수준의 엔진 출력으로 선박을 운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속 운항에서도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EPLO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HD현대마린솔루션은 엔진 터보차저 분야 글로벌 리더인 액셀러론(Acelleron)社와 EPLO 서비스를 론칭하고 처음으로 시장 개척에 나선 바 있다.



HD현대삼호

ABS와 스마트 야드 구축 업무협약 체결

HD현대삼호가 ABS선급과 'Si 기반 스마트 야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조선소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글로벌 기술 인증 확보를 목표로 추진됐다. 지난 5월 20일(화) 본관 1층 VIP접견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HD현대삼호 생산본부장인 김환규 부사장과 ABS선급 한국 영업대표 김성훈 대표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협약을 두 회사는 통해 Si 기반 스마트 기술의 조선소 적용을 본격화하고, 기술 인증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MOU는 'PDA(Product Design Assessment)'를 중심으로 한 기술 인증 추진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PDA는 선급이 제품 설계 적합성

을 사전에 검토·평가하는 제도로, 스마트 야드 구축의 핵심인 데이터 기반 기술이 포함될 예정이다. HD현대삼호는 이번 MOU를 시작으로 6월 중 자료 준비와 1차 자료 제출을 거쳐 12월에는 최종적으로 PDA 발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HD현대인프라코어

디벨론 차세대 신모델 굴착기 첫 인도

HD현대인프라코어가 지난 5월 19일(월) 24톤급 디벨론 차세대 신모델 굴착기(DX240) 1호기 인도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HD현대인프라코어 오승현 사장과 문재영 건설기계사업본부장은 1호기 고객인 이용철 청림환경 대표, 황의병 하나종합중기 대표에게 기념패와 금명함을 전달했다.

국내 주요 고객과 판매법인 관계자 20여 명도 참석해 신규 장비의 첫 인도를 축하하고, 장비 시승을 체험하며 차세대 신모델의 디자인과 장비 조작의 편의성, 최신 스마트 기술 기반의 운행 안전성 등에 대해 호평을 보냈다.

한편, HD현대인프라코어는 최초 구매 고객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프로모션 할인 혜택과 사후 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HD현대오일뱅크

지역 청소년과 함께하는 미래 설계

HD현대오일뱅크는 서울대학교와 협력해 서산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진로 특강, 적성 검사, 멘토링 등으로 구성돼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진로검사 플랫폼 '애피핏(APTIFIT)'을 활용해 4년제 대학 139개 학과 중 개인 성향에 맞는 전공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서울대 재학생과의 소그룹 멘토링도 마련돼 학습 노하우와 대학 생활에 대한 생생한 조언이 전해졌다.

진로 정보 접근이 제한적인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획된 이번 활동은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였다"는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청소년의 잠재력을 키우는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

N타입 탑콘 셀 양산 본격화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차세대 태양광 기술인 N타입 탑콘(TOPCon) 셀(태양전지) 양산을 본격화하며, 미국 등 글로벌 고효율 태양광 시장 공략에 나섰다.

N타입 탑콘 셀은 기존 P타입 셀보다 발전 효율이 높고, 고온 환경에서도 출력 저하가 적으며, 열화에 강한 것이 특징이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국내 생산을 기반으로 품질과 납기 신뢰도를 확보하고, 645W급 탑콘 모듈로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Made in Korea' 강점과 탑콘 특허 실시권을 바탕으로 미국 내에서 모듈 공급을 확대하고, 현지 모듈 제조업체 대상 셀 공급도 검토 중이다.

한편, 셀은 태양광 발전의 핵심 부품이자 모듈의 효율·출력·탄소배출량·원산지·특허 등 주요 성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태양광 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며,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이러한 셀 기술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입지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Made in Korea
특허 실시권 보유
탄소배출량 630kg · CO₂/kW 이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최신택

TOPCon G10 16BB

≥25.6%
Front Efficiency

≥85%
Bifaciality

182.20mm x 183.75mm ± 0.25mm
Dimension

페인트 대신 헤드셋! 선박 도장 훈련, VR 시대 열렸다.

HD한국조선해양 그린코팅연구과와 HD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가 공동 개발한 VR 선박 도장 시뮬레이터가
도장 훈련 방식을 혁신했다.

실감나는 가상훈련, 교육 효율은 두 배

HD현대선박 도장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VR(가상현실) 기반 도장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현장 교육에 본격 도입했다. 이 시뮬레이터는 90% 이상의 정확도를 갖춘 도막 형성 알고리즘을 적용해 실제 도장 환경을 다양한 3D 가상공간에 정밀하게 재현한다.

도막 두께, 도료 분사 패턴, 시공 결합 등 주요 작업 조건이 그대로 구현되며, 분사 각도, 분사 거리, 도료 사용량, 도막 두께 분포와 같은 항목은 실시간으로 측정돼 교육생의 기량을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기존 교육에서 주관적이었던 숙련도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특히 다양한 가상공간에서 안전하게 반복 훈련할 수 있어 교육 효율이 크게 향상됐으며, 훈련 기간은 평균 50%, 최대 90%까지 단축돼 신속한 인력 양성과 현장 투입이 가능해졌다. 이는 향후 조선산업의 인력 수급 문제 해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VR시뮬레이터 평가지

외국인, 초심자도 쉽게 익히는 스마트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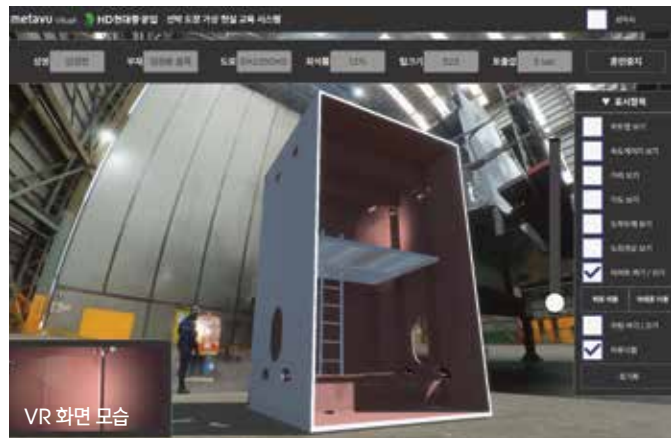
VR 시뮬레이터는 다국어 지원 기능을 갖춰 외국인 근로자들도 언어 장벽 없이 학습할 수 있다. 지난 3월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 교육을 실시했으며,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6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교육 현장에서는 “VR을 통해 도장 패턴의 중요성과 일정한 분사 거리 유지 등을 안전하고 생생하게 익힐 수 있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 시뮬레이터는 조선산업에 처음 입문한 근로자들도 복잡한 도장 작업의 기본기를 짧은 시간 내에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신입 인력의 빠른 성장과 경력 개발에도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정부 공인 1호 자격장비 선정

이번 기술 도입은 단순한 교육 개선을 넘어, 조선산업 전반의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에는 VR 선박도장 시뮬레이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기업자격 정부인정제’ 제1호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는 민간이 개발한 기술이 정부의 자격 제도 표준 장비로 채택된 국내 최초 사례로, 기술을 넘어 산업 교육의 구조를 혁신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VR시뮬레이터는 현재 HD현대중공업에 6대, HD현대미포와 HD현대삼호에도 각각 2대씩 도입돼 운영 중이며, 필리핀·베트남 등 해외 법인과 교육기관으로의 보급도 검토 중이다.



'Real-X'로 무인·자율화 솔루션 상용화 박차

HD현대 건설기계 부문이 독일 바우마(Bauma)
2025 전시에서 상용화에 근접한 최첨단 무인·자율화
솔루션 'Real-X(리얼 엑스)'를 공개하며 자율제어
건설기계 시장 선점에 나섰다.

가장 진보한 자율제어 기술로 '시선 집중'

이번에 선보인 Real-X는 지난해 프랑스 인터마트(INTERMAT) 전시회에서 시연한 'Concept-X2.0(콘셉트 엑스 2.0)'보다 한층 발전된 기술력으로, 단 1년 만에 상용화에 더욱 가까운 수준으로 등장해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Concept-X2.0에서 무인 굴착기가 도저와 협업해 단일 작업을 수행했다면, Real-X는 무인 굴착기 본체에 센서를 부착해 지형과 물체, 구조물 등 주변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AI 분석을 통해 다음 작업을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

바우마 2025 전시장에서는 Real-X 자율제어 굴착기가 버킷으로 흙을 파내는 굴착 작업부터 주변의 굴절식 덤프트럭으로 흙을 옮기는 상차 작업을 연속으로 수행한 후, 지정된 위치로 자율 주행해 주차까지 마치는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시연했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 작업하는 장비와 유사한 수준의 고도화된 기술로, 전시 기간에 진행된 여러 자율제어 건설기계 시연 중에서도 작업 난이도와 완성도 면에서 단연 돋보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HD현대 건설기계 부문 Real-X 굴착기

실제 현장에서 검증 통해 기술 완성도 강화

굴착기는 험한 환경에서 복합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율화가 어려운 분야로 꼽히지만,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과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로 인해 자율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HD현대 건설기계 부문은 현장의 작업 공정을 심층 분석해 자율제어 굴착기가 수행할 작업을 단계적으로 구현하고, 생산성·안전성·적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을 진행한 끝에 Real-X를 선보이며 자율제어 건설기계 시장 선점에 나섰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이번 전시기간 중 글로벌 건축 자재 기업 홀심

(Holcim), 스위스 자율 중장비 기업 그라비스 로보틱스(Gravis Robotics)와 건설기계 자율화 기술 실증을 위한 3자 MOU를 체결했다.

Real-X 자율제어 굴착기를 홀심의 작업장에 투입해 시범 운용하며 다양한 작업 조건에서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라비스 로보틱스와 협업을 통해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 자율제어 건설장비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왼쪽부터 HD현대사이트솔루션 김판영 디지털융합기술부문장, 홀심 로베르트 노레스 프로젝트 총괄, 그라비스 로보틱스 라이언 루크 존스 대표이사, 도미니크 주드 최고 기술 책임자



삼프리카를
한국 기업이 개발해 세계를 놀라게 한 기술



Leading the Future

HD현대일렉트릭의 **미래 성장동력, 유럽 전력기기 시장**에
도전하는 전력해외영업1부 영업2과를 만났다.

“앞으로도 유럽 고객이 HD현대일렉트릭을
'신뢰할 수 있는 기술 파트너'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 영업2과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전력해외영업1부 영업2과는 EU 27개국을 포함한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전력기기 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북미 및 중동 시장에 편중된 전력기기 사업 구조를 탈피하고자 유럽을 차세대 주력 시장으로 선정했고 저희 팀은 신시장 개척이라는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팀원 대부분이 선임 이하 직급으로 구성돼 있지만, 뛰어난 전문성과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복잡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Q. 유럽 전력기기 시장은 어떤 점에서 다른 시장과 차별화되나요?

유럽 시장은 Siemens, Hitachi Energy 등 오랜 경력을 가진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이에 따라 기술력은 물론, 제품 공급 이력과 사후관리(A/S) 체계까지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저희 팀은 이러한 시장의 높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미주, 중동 시장에서 축적된 성과와 기술력을 강조하는 한편, 고객 세미나, 공장 방문 등 고객 접점을 확대하며 신뢰를 쌓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Q. 최근 유럽 전력기기 시장의 주요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근 유럽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망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력기기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NZIA(Net-Zero Industry Act) 법안과 같이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의 일종인 육불화황(SF₆) 사용을 제한하는 'F-Gas Regulation'과 같은 환경 규제 강화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HD현대일렉트릭은 친환경 고압차단기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비록 유럽 경쟁사 대비 제품 개발 시기는 다소 늦었지만,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Q. 최근의 수주 성과를 소개해 주세요

지난 4월, 저희는 스웨덴 고객과 145kV 친환경 고압차단기 초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유럽 친환경 GIS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1월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것으로, 초기에는 고객사가 당사의 해당 용량 제품 공급 실적 부재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설계 및 개발 부서의 적극적인 기술 지원과 국내 시장에서의 170kV 친환경 고압차단기 제품 공급 실적을 바탕으로 신뢰를 쌓는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수주에 성공할 수 있었으며, 현재는 2026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는 400kV 친환경 고압차단기 수주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Q. 영업2과만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저희 팀의 가장 큰 강점은 자유롭고 활발한 지식 공유 문화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각 팀원이 서로 다른 국가와 고객을 담당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며 서로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은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팀원 간 유대감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식사를 함께하며 취미, 여행처럼 사적인 이야기는 물론, 출장 중 겪은 에피소드나 유용한 정보도 가볍게 나누며 즐거운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팀은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팀워크를 다지는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팀의 당면 목표는 2026년 개발 완료 예정인 400kV 친환경 고압차단기의 초도 수주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특수 변압기 등 고부가가치 기술 제품의 유럽 시장 수주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HD현대일렉트릭이 단순한 후발 주자가 아닌, 기술력과 품질로 유럽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HD현대, K-해양방산의 미래를 그린다

지난 5월 28일(수)부터 나흘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국내 최대 해양방위 산업 전문 전시회인 'MADEX 2025'가 열렸다. HD현대중공업은 이 행사에서 미래 해양방산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주목을 끌었다. 전시관의 규모부터 차별화된 콘셉트까지,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향한 HD현대중공업의 야심찬 도전장을 보여주는 장이었다.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5 HD현대 부스

세 가지 테마로 선보인 전시관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전시에서 차세대 스텔스 함정을 형상화한 부스를 LIG넥스원과 공동으로 운영했다. 특히 218㎡ 규모의 전시관을 세 가지 테마, 즉 ▲국내함정 ▲수출함정 ▲미래함정으로 나눠 운영해 시선을 끌었다.

국내함정 존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자체 설계 및 건조한 정조대양급 이지스 구축함을 기준으로 개발 중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을 비롯해 울산급 배치-III 선도함인 충남함, 자체 개발한 원해경비함을 배치해 우리나라 해군 전력의 위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수출함정 존에서는 필리핀과 페루 수출용 호위함과 더불어, 향후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개발된 6천 500톤급 대양작전용 호위함을 처음 공개하며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미래함정 존은 HD현대중공업의 미래함정 콘셉트 시리즈 'HCX 시리즈'의 진화형인 'HCX-25'와 AI 기반의 유·무인복합전력 기함(지휘함)

이 될 '기동형 무인전력통제함', '미래형 무인전력모함', '전투용 무인수상정'(USV) 시리즈를 전시해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의 선도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글로벌 협력과 기술력 강화

이번 전시는 단순한 기술 전시를 넘어 글로벌 해양방산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자리이기도 했다.

개막 첫날인 28일(수), HD현대중공업은 레오나르도(LEONARDO), 탈레스(Thales)와 수출함정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KAI, LIG넥스원과는 '다목적 무인전력 모함' 기술협력 MOU를 맺었고, 포스코와는 차세대 함정용 신소재 개발 협력 MOU를 체결해 미래 함정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이어 29일(목)에는 포르투갈 해군과 소형 잠수함 공동 개발 MOU를



HD현대중공업, 함정 분야 최초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획득



리셉션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정기선 수석부회장



군 출신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채용박람회

체결해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이번 전시에는 미국을 포함한 30여 개국의 해군 대표단이 HD현대중공업 부스를 방문하며, 한-미 협력을 비롯한 글로벌 방산 네트워크와 인도-태평양 방산 벨트화를 공고히 다졌다.

"글로벌 해양 안보 선도기업 도약할 것"

HD현대 정기선 수석부회장은 MADEX 개막 첫날 현장을 찾아 전시관을 둘러보고 각국 대표단 및 기업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어 HD현대와 LIG넥스원이 공동 주최한 리셉션 행사에 참석해 HD현대 함정사업의 비전과 글로벌 협력 가능성을 공유했다.

정 부회장은 리셉션 환영사에서 "영상 속 나대용 장군은 거북선을 설계한 선박 기술사이며, 그의 업적은 조부 정주영 창업자님께 영감을 주어 대한민국 최초 전투함인 울산함을 비롯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함정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HD현대는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력과 미래 전장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해양 안보를 책임지는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리셉션에는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주한미해군사령관, 페루·필리핀·사우디아라비아 등 7개국 해양방산 관계자들이 참석해 K-해양방산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군 출신 인재를 위한 채용박람회

이번 MADEX에서는 특별한 풍경도 연출됐다. HD현대의 조선 계열사(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 HD현대마린솔루션)가 함께 주관하는 군 출신 인재 대상 채용박람회도 함께 열린 것. 각 회사 현업 담당자와 인사팀 직원들이 일대일로 채용 컨설팅을 제공하며 군 경력과 희망 직무를 연계해 최적의 커리어 경로를 제시했다.

부스 현장에서는 군인 맞춤형 이벤트와 포토월, 사은품 증정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돼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차세대 신모델 굴착기, 국내외에서 성공적 론칭

HD현대 건설기계 부문이 '2025서울모빌리티쇼와 독일 '바우마 2025' 전시회 등 국내외 대규모 전시회에 참가해 차세대 신모델 굴착기와 혁신 기술을 선보였다.

2025서울모빌리티쇼, 굴착기 탑승 인기에 '오픈런'

HD현대 건설기계 부문이 지난 4월 3일(목)부터 10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5서울모빌리티쇼'에서 차세대 굴착기 2종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에 선보인 모델은 HD현대건설기계의 40톤급 'HYUNDAI' 굴착기 HX400과 HD현대인프라코어의 24톤급 'DEVELON' 굴착기 DX240으로, 글로벌 톱티어 브랜드들과 본격 경쟁을 위해 개발됐다.

차세대 신모델은 전자제어유압시스템(Full Electro-Hydraulic system, FEH)을 기반으로 ▲작업 효율을 높이는 스마트 어시스트 ▲안전을 책임지는 스마트 세이프티 ▲장비 가동시간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모니터링 기능이 적용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HD현대 건설기계 부문은 'No Infrastructure, No Mobility'를 주제로 총 1천 215㎡(367평)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했으며, 약 28만 명의 관람객들이 방문했다.

전시관 중앙에 설치된 12m 대형 LED 화면을 중심으로 좌우에 루버형 스크린과 차세대 신모델을 전시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으며, 특히 차세대 신모델 굴착기 탑승 체험은 오픈런부터 시작해 전시 기간 동안 대기 행렬이 이어지는 등 높은 인기를 얻었다.

또한 4D 라이드, VR 시뮬레이터, RC 건설장비 시연, 마일스톤 테이블 등 첨단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디지털 그래피티와 유아용 건설기계 장난감 '데구르르(Dgrr)' 존, O/X퀴즈 이벤트, 굿즈숍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RC 건설기계 시연 모습



Dgrr(데구르르) 장난감 체험



현대 차세대 신모델 굴착기, 수소 굴착기 시연



디벨론 차세대 굴착기 시연

바우마 2025, 건설기계 미래 기술의 새 지평 열어

2025서울모빌리티쇼에 이어 '바우마 2025(Bauma 2025)' 전시회가 지난 4월 7일(월)부터 13일(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열렸다.

바우마는 미국의 콘엑스포(CONEXPO), 프랑스의 인터마트(INTERMAT)와 함께 세계 3대 건설기계 전시회로 꼽히며, 전시 면적이 61만 4천㎡(18만 5천 735평)로 축구장 약 86개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국제 전시회다.

HD현대 건설기계 부문은 전시회 개막과 함께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 부스에서 차세대 신모델 굴착기의 '언베일링 쇼케이스'를 진행하고, 데모쇼를 통해 더욱 진보한 성능을 선보이며 HD현대의 육상 비전 'Xite Transformation'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HD현대건설기계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인텔리전트 파크

(Intelligent Park)'를 전시 테마로 3천 500㎡(1천 40평) 규모 부스를 마련해 20여 대의 장비와 스마트 기술을 공개했다. 특히 기후 보호 부문에서 '바우마 2025 혁신상' 최종 후보에 오른 수소 굴착기의 시연으로 주목을 받았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DEVELON' 브랜드로 바우마에 처음 참가해 3천 800㎡(1천 130평) 규모 부스에서 유럽 맞춤형 콤팩트 장비와 머트리얼 핸들러, 전동화 제품 등 20여 대 장비를 전시하고, 수소 엔진과 배터리팩 등 차세대 파워트레인도 선보이며 기술 경쟁력을 강조했다.

특히, 앞서 '미래를 여는 HD' 코너에서 소개된 'Real-X(리얼 엑스)' 기술이 적용된 무인 굴착기가 굴절식 덤프트럭(ADT)과 협업하는 시연을 진행하며 상용화에 한층 가까워진 무인·자율화 솔루션을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현대 굴절식 덤프트럭(ADT)



디벨론 특수장비존



현대 차세대 신모델 굴착기



디벨론 머트리얼 핸들러



“새로운 50년을 향한 소통과 화합의 장 잇달아”

창사 50주년을 맞은 HD현대미포가 임직원간의 화합을 다지고 자긍심을 북돋는 이색 이벤트를 잇달아 마련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도전! 미포골든벨’과 ‘미포 5G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임직원들이 마음껏 웃고 즐기며 활력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서 대표 100명, ‘미포골든벨’서 열띤 지식경연 펼쳐

지난 4월 28일(월) 저녁, ‘도전! 미포골든벨’ 퀴즈대회가 HD현대미포의 한우리회관 체육관에서 열렸다. 회사 설립일에 맞춰 개최된 이 대회에는 각 부서를 대표하는 사원 100명이 참가해 회사 현황과 역사, 안전수칙 등 다양한 문제들을 풀며 상식왕 자리를 두고 실력을 겨뤘다.

김형관 사장은 대회 개최를 선언하고 ‘최후의 1인’을 위한 문제를 출제하는 등 행사 내내 자리를 지키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김형관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포골든벨을 준비하며 드러낸 학구열과 역량 향상 의지를 바탕으로 개인과 회사 발전을 함께 이뤄, 새로운 50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미포골든벨에서 총 30여 개 문제를 푸는 동안 높은 정답률을 기록하며 선전했지만, ‘킬러 문항’으로 인해 탈락자가 대거 발생하기도 했다. ▲회사에 존재하지 않는 부서(정답: DM생산솔루션부) ▲식당이 없는 건물(정답: 해양1관) 등의 문제가 객관식임에도 불구하고, 생존자의 절반가량이 탈락했다.

반면, △고소작업 정의 △지브크레인 작업중지 풍속 기준 등의 패자부활전 문제는 OX 문제로 쉽게 출제돼, 단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살아남는 행운을 얻었다.

이날 최종 우승의 영광은 이수용 책임매니저(사업 기획부)에게 돌아갔다. 결선 진출에 이어 ‘최후의 1인’에 오른 그는 “HD현대미포의 창립기념일은 10월 1일인데, 실제 회사 설립일자는 언제인가”라는 마지막 문제에 거침없이 정답(4월 28일)을 적어냈고, 마침내 골든벨을 울려 부서회식비 50만 원과 함께 로봇청소기를 부상으로 받았다. 이수용 책임매니저는 우승 소감으로 “50년간 선 후배 동료들이 반질반질 닦아온 회사가 앞으로 50년 더 반짝반짝 빛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각 부서에서 열띤 응원전

을 펼치며, 현장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HD현대미포는 대회 참가자와 응원하는 사우들 모두에게 샌드위치와 음료를 제공하고, 경품 추첨을 통해 즐거움을 더했다.

이와 함께, HD현대미포는 결선 진출자 13명에게 개인상을, 이 중 2~5위에게 부서 회식비 2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참가자들의 도전과 열정에 화답했다.

‘5G 올림픽’ 중식시간 이색 경기로 활력 재충전

HD현대미포는 지난 5월 30일(금) 사내 스포츠문화행사인 ‘미포 5G 올림픽’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5G 올림픽은 창사 50주년을 기념해 펀치게임, 딱지치기, 공기놀이, 팀 줄넘기, 미니농구 등 5개 종목들로 구성됐고, 지난 5월 8일(목)부터 약 3주간 중식시간을 활용해 생산현장 곳곳을 순회하며 개최됐다.

5G 올림픽 경기는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들로 이뤄져, 매번 큰 호응을 얻었다. 총 14회에 걸쳐 진행된 이 행사에는 총 1천 8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이색적인 게임을 선호하는 MZ세대부터 단합을 중시하



는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화합하며 결속력을 다졌다. 이번 행사에는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 그리고 외국인 사우까지 함께 어울려 우정을 나눴다. K드라마 열풍에 힘입어 타국에서 온 사우들도 딱지치기와 공기놀이 등 한국 고유의 놀이문화에 익숙해졌고, 다함께 즐거워하며 미포가족의 일원으로서 동료들과 더욱 끈끈해졌다.

특정 종목에서는 외국인 사우들의 우세가 뚜렷했다. 펀치게임 남자부 문에서는 격투기 강국 러시아 출신의 사우(대경홀드 이완 씨)가 종합 1위를 기록했고, 미니농구 남자부문에서 필리핀 사우(세광티에스 아치 씨)가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팀 줄넘기 종목에서는 조달2부 이민규 인턴사원이 조달1·2부 선배사우들(이준형 책임, 김영은 선임, 오나영 사원, 권수연 사원)과 함께 찰떡호흡을 자랑하며, 종합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이민규 인턴사원은 “자꾸만 발이 줄에 걸려 여러 번 실패했지만, 선배들이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덕분에 마지막 시도에서 줄넘기 100개를 거뜬히 넘겼다”며, “함께 목표를 이뤄낸 경험을 토대로 선배동료들과 환상의 팀워크를 자랑하는 신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D현대미포는 각 종목별로 매회 1위를 기록한 사우들에게 무선이어폰을 증정했고, 전체 1위를 차지한 12명에게 호텔숙박권을 선물했다.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HMD 성공과 도약의 발자취 수기공모전(6~8월) ▲트래블 크루즈(9월) ▲50주년 기념식 및 콘서트(9월) 등 창사 50주년을 기념한 이벤트들을 더욱 다채롭게 준비할 예정이다.

이들 이벤트는 회사 50주년을 임직원 모두가 흥겹게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세대와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50년을 향한 결속을 다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선박,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한 척의 선박이 탄생하기까지는 계약의 순간부터 설계, 생산, 인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긴밀한 협업이 이뤄진다.

HD현대중공업은 그 여정을 함께한 젊은 실무자들이 명명식에 직접 참여해, 자신이 만든 선박의 완성 순간을 마주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실무자 참여 명명식 프로그램 운영

HD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가 실무 엔지니어 및 매니저들에게 자부심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명명식 참여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 처음 시행된 이 프로그램은 입사 3년차 이상의 엔지니어와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하며, 자신이 직접 설계하거나 제작에 참여한 선박의 명명식에 참석해보는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선박 건조에 함께한 직원들이 참여 소감과 현장 의견을 선주사에 직접 전달하는 시간을 갖는 등 단순 참관을 넘어 실무자와 고객 간의 진솔한 소통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뿐만 아니라 선주사로부터도 호응을 얻고 있다.

ONE SPLENDOUR의 주역들

지난 6월 5일(목), 울산 본사 5안벽에서 열린 메테오(METEOR)사의 1만 3천 700TEU급 컨테이너선 ‘3362호선’ 명명식에는 HD현대중공업 정한욱 엔지니어(기장설계부)와 연희 매니저(대조립2부), 박명훈 매니저(조선원가관리부)가 참여했다.

이들은 각자 자신이 맡았던 설계·조립·원가관리 과정의 결과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깊은 감회를 나눴고, ‘오엔이 스피글렌더(ONE SPLENDOR)’호로 명명된 선박의 탄생을 축하했다.

이번 행사 참여를 통해 직원들은 서로 다른 부문의 역할과 노력에 대해 자연스럽게 공감하게 됐고, 선주사와의 대화를 통해 고객의 관점에서도 선박 건조 과정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실무자들에게는 단순한 명명식을 넘어, 더 나은 협업과 개선을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으로 남았다.



참여자 미니 인터뷰



“명명식에 와서 설계 도면 속 배가 실제 바다에 떠 있는 걸 보니 마음이 뭉클했고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순간을 함께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현욱 엔지니어(기장설계부)

“생산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수정과 점검을 반복했던 과정이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그 결과물이 잘 반영된 걸 보니 보람을 느꼈습니다.”

연희 매니저(대조립2부)



“예산 조율 과정에서 고려했던 부분들이 실제 결과물에 잘 반영된 걸 보니, 품질과 효율이 균형 있게 구현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박명훈 매니저(조선원가관리부)



"대한민국을 대표해 금메달 따고 싶어요!"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HD현대중공업
미르자모히드알리 사우

겉모습만 보면 외국인이라고 착각하는 이들도
많지만, 뺨속까지 한국인인 HD현대중공업
미르자모히드알리(기술교육원, 만 20세) 사우.
오는 2026년 9월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제48회 국제기능올림픽을 앞두고,
지난 6월 CNC선반 종목 국가대표 선수로 최종 선정된
미르자모히드알리 사우를 만나봤다.



이국적 외모의 한국인, 기능인의 길을 걷다

2005년 대구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모두 대구에서 다닌 그는 이름이 길어 '알리', '모히드', '미모알' 등 다양한 별명으로 불린다. 파키스탄 출신 부모님의 이국적인 외모를 닮았지만, 국적도, 식성도, 생각하는 방식도 한국인이다. 어린 시절 남다른 외모로 인해 당혹스러운 순간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의 응원 속에 긍정적인 시각을 키웠다.

고등학교 입학 첫 해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생활을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이 시기가 학업에 대한 동기를 북돋웠다. 그는 친구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사이, 오히려 '지금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기능인의 길로 들어선 건 우연이었다. 학교 기능반에 들어가 선배가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CNC선반 종목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 CNC선반은 5축 터널 장비로 0.001mm 오차까지 초정밀 가공하는 기술이 필요한 종목으로, 그의 차분하고 침착한 성격과 잘 맞았다.

꿈꾸던 대기업 엔지니어, 이제는 국제무대 도전

어렸을 때부터 장래희망이 '잘 나가는 대기업의 엔지니어'였다는 그는 전국기능대회에 입상을 하면 조선업에서 독보적 1등 회사인 HD현대중공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꼭 이 회사에 입사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고교 3학년 전국기능대회에서는 작은 실수로 입상에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 끝에 결국 메달을 획득했다. 이를 계기로 HD현대중공업 입사에도 성공하며, 꿈꾸던 '대기업 엔지니어'가 되었다.

이제 그는 HD현대중공업의 직원으로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로서 한층 높은 목표를 향해 도전 중이다. 그는 "매일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동료 여러분들의 모습에 저도 하루하루 더 열심히 하고 성장해야겠다고 다짐한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하는 만큼 반드시 금메달 수상이라는 성과를 내 저처럼 남다른 성장 배경을 가진 사람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회사와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싶다"고 각오를 전했다. 미르자모히드알리 사우가 어떤 기능인으로 성장할지,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끊임없는 배움의 노력, 기술혁신으로 이어져”

HD현대미포 허원석 기장(디지털생산혁신센터)

“조선해양 분야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우니,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가 샘솟듯 떠올라요”
특허 4건, 디자인 6건 등 지식재산권만 10여건을 출원하고
우수숙련기술자(2021년), 울산시명장(2022년)에 잇달아
선정된 허원석 기장.
HD현대미포에서 내로라하는 기능인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직무향상을 위한 그의 배움에는 끝이 없다.

늦은 출발, 치열한 노력으로 쌓은 기술력

허원석 기장은 올해 HD현대마이스터대학 조선해양산업공학과에 입학, 선박용접을 넘어 구조·가공 등 전반적인 조선기술을 공부하며 자동용접장비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손기술에 대한 재능을 발견하고 과감히 기능인의 길을 선택했다. 경남권 조선소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후, 2001년 HD현대미포에 입사해 선박 건조용접, 선체품질검사, 용접 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

29세에 처음 용접을 시작했지만, 늦은 출발을 극복하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노력해 용접기능장 등 20여 종의 자격을 취득했다. 현재는 지방기능경기대회 감독위원, 국가기술자격시험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며 후배 기능인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허원석 기장은 생산현장에서 터득한 섬세한 용접기술을 바탕으로 지난 2019년부터 자동화장비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직·수평이 가능한 자동 일렉트로가스용접(EGW)장치를 비롯해 연 3~4건의 신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

기술혁신의 선두에서, 후배 양성까지

그는 지난 2016년 최우수상을 시작으로 ‘미포인상’ 입상만 3회에 달한다. 그중 대표적인 성과는 지난해 말 그에게 미포인상 대상의 영예를 안겨준 ‘파형격벽 수평용접 캐리지’ 기술이다. 이 캐리지는 HD현대미포의 PC선에서 파형격벽(波形隔壁, 물결 모양의 금속판으로 화물창을 구분 짓는 구조물)과 상부 지지판(Stool)을 자동 용접하는 장비로, 굴곡진 부분을 주행해야 하는 기술적인 난관을 극복

하고 4년여의 연구 끝에 개발됐다. 허원석 기장은 이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은 물론 기술 실증, 선급 인증 등을 세밀히 챙기며, 마침내 기술 상용화를 이뤄냈다고.

최근에는 HD현대미포가 업계 최초로 개발한 ‘핸드헬드 레이저 용접기술’에도 참여했다. 레이저를 활용해 기존 아크용접보다 정밀도와 속도가 대폭 향상되었고, 비숙련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협동로봇 적용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 기술은 강재 절단, 녹 제거 등으로도 확대 응용될 전망이다.

후배 양성에도 열정적인 그는 사내강사는 물론 지역 특성화고·한국폴리텍대학에서 지도하며 용접기술을 전수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800시간이 넘는 봉사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허원석 기장은 “기술인의 최고 영예인 ‘대한민국 명장’에 도달하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꾸준히 준비한 사람만이 희망찬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다른 사우들도 직무능력 향상에 더욱 힘쓰면 좋겠다”고 말했다.





1. 굴착기

굴착기는 도심에서 기동성이 필요한 경우 휠 굴착기, 험지에서는 접지력이 우수한 크롤러 굴착기를 사용한다. 미니 굴착기는 실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로 고무로 만든 크롤러를 장착한다. HD현대 건설기계 부문에서는 장비 중량에 따라 1톤부터 125톤까지 다양한 크기의 굴착기를 공급하고 있다.



샵프리필름
"굴착기는 땅만 팔까?"

3. 덤프트럭

HD현대 건설기계 부문은 ADT와 WDT 2가지 종류의 덤프트럭을 공급한다. ADT(Articulate Dump Truck, 굴절식 덤프트럭)는 차체 앞뒤가 독립적으로 움직여 회전 반경을 최소화하고, 접지력과 안정성을 높여 좁고 험한 곳에서 수요가 높다. WDT(Wide-body Dump Truck)는 광산에 특화된 대형 덤프트럭이다.



2. 휠로더

휠로더는 대형 버킷으로 골재 등의 적재물을 옮기는 장비로 버킷 너비만 2.5~3.5m에 달한다. HD현대 건설기계 부문은 세계 최초로 버킷 전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투명 버킷' 기술을 개발해 운전석의 시야를 개선하고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샵프리필름
"굴착기 보다 낫다고요?
휠로더가 진짜 빛나는 순간!"



샵프리필름
"광산에서 6억 넘는
트럭을 쓰는 이유"

인류의 상상을 현실로, 삶의 터전을 가꾸는 건설기계

사람들이 상상한 멋진 공간과 사회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를 짓는 건설 현장,
더욱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위한 자원을 캐내는 광산 현장 등
인류의 발전이 이뤄지는 현장의 최전선에는 언제나 건설기계가 있다.
건설기계 중 가장 잘 알려진 굴착기를 비롯해,
HD현대 건설기계 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장비 라인업을 알아보자!

4. 특수장비

특수한 환경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들은 외관부터 특별하다. 폐기물 더미를 정리하는 '머트리얼 핸들러', 땅에 구멍을 뚫는 '천공기'와 지하 깊은 곳을 굴착하는 '텔레스코픽 디퍼', 건물 철거 전용 '데몰리션 굴착기', 배터리와 케이블 타입의 '전기 굴착기'와 육상 및 수상 작업이 모두 가능한 '수륙양용 굴착기' 등 작업장의 용도에 최적화된 특수장비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5. 지게차

지게차는 동력원에 따라 엔진식, 그리고 배터리를 탑재하는 전동식으로 구분된다. 미국 산업차량협회는 지게차의 동력원과 적재 중량 등에 따라 Class 1에서 7까지 분류하는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HD현대 건설기계 부문은 Class 1부터 Class 5까지 다양한 모델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무인 지게차'를 선보이는 등 물류 자동화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6. 중소형 건설기계 및 기타

HD현대 건설기계 부문은 소규모 작업장에서 굴착과 적재가 모두 가능한 '백호로더', 골재와 흙, 풀더미 등을 운반하는 '스키드 스티어 로더'와 습지와 험지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콤팩트 트랙 로더' 등 중소형 건설기계와 토목·건설 현장에서 지반을 정리하는 '불도저' 및 '모터 그레이더' 등 다양한 수요에 맞춰 라인업 확장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엔진과 배터리, 유압 부품 및 모터 등 산업기계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전기·수소 건설기계와 수소 지게차, 수소 엔진 등 친환경 제품과 미래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메이크어워시 난치병 환아들의 소원에 날개를 달다!

병마와 싸우는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소박하지만 간절한 소원이 자리 잡고 있다.
긴 치료의 시간 속에서도 언젠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품어온 작은 꿈들.
HD현대1%나눔재단(이사장 권오갑)은 '메이크어워시' 프로젝트를 통해 난치병 환아들의 소중한 꿈을 현실로 만드는 따뜻한 여정을 시작했다.



139명의 천사, 35개의 소원

메이크어워시 프로젝트는 '위시키드(소원 대상 아동)'와 '위시엔젤(자원봉사자)'이 함께 소원을 그려나가고, 최종적으로 '위시데이'에 소원이 실현되는 프로그램이다.

위시키드와 위시엔젤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여러 차례 만나 소원을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만들어간다. 마지막 날인 '위시데이'에는 아이의 소원이 현실이 되며, 특별한 하루가 선물된다.

이러한 활동은 환아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것은 물론, 오랜 시간 긴장과 불안 속에서 아이를 지켜온 보호자에게도 깊은 위로와 감동을 전해 가족 모두에게 심리적 회복의 계기가 된다. HD현대1%나눔재단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139명의 대학생 봉사자와 함께 35명의 환아 소원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전한 첫 번째 희망의 씨앗



린이병원을 찾아 200명의 환아에게 휴대용 선풍기, 위생용품 등 병원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했다. 여기에 더해, 현대(HYUNDAI) 및 디벨론(DEVELON) 토이블록도 함께 선물하여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마술 공연과 포토부스도 마련되어 환아와 가족, 의료진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HD현대1%나눔재단이 '메이크어위시' 프로젝트를 많은 환아들에게 소개하고,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

행사에 참여한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 완화의료팀 송나영 사회복지사는 “항암 치료를 받는 아이들은 찡그린 얼굴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행사에서 풍선과 선물을 받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부뒸했고, 이런 날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메디컬 아웃리치 행사 속 생생한 현장 모습은 HD현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HD현대 임직원이 함께 만드는 꿈의 여정

이 특별한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가는 건 아이들만이 아니다. 소원을 실현할 동반자인 '위시엔젤' 모집에도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다.

200명이 넘는 대학생 봉사자가 지원했고, 서류와 면접을 거쳐 최종 139명이 선발되었다. 여기에 동일한 과정을 거쳐 선발된 HD현대 임직원과 가족 23명도 합류하며 더욱 든든한 응원군이 만들어졌다. 이들은 각자의 일상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누군가의 인생에 소중한 하루를 선물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위시키드의 꿈을 함께 그리고, 함께 준비하며, 위시데이라는 특별한 순간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가게 된다.

'위시엔젤'로 활동하게 된 HD한국조선해양 이희림 선임 SI연구원은 “환아들의 소원을 이뤄줄 생각에 기대와 설렘이 가득하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환아들이 평소에 간절히 원했던 소원을 이루고, 정서적 지원을 받아 건강을 되찾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메이크어위시 프로젝트는 6월 25일 열린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이어진다. HD현대1%나눔재단의 따뜻한 관심과 '위시엔젤'들의 노력을 통해 환아들이 건강을 되찾고 희망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HD아트센터 브랜드 리뉴얼 기념 '드림위크'로 새로운 시작을 열다!

창립 27주년을 맞은 HD아트센터가 브랜드 리뉴얼 기념행사 '드림위크'와 가족초대작품전
*Have a safe Day!*로 지역과 임직원의 뜨거운 응원을 받으며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

꿈 같은 출발 : Dream Week

HD아트센터로 새 출발한 현대예술관이 창립 27주년 개관일을 맞아 지난 6월 9일(월)부터 15일(일)까지 '드림위크(Dream

Week)'를 개최하며 지역민과 임직원의 축하 속에 브랜드 리뉴얼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드림위크'는 HD아트센터의 새 이름과 비전을 널리 알리고, 오랜 시간 임직원과 지역 사회와 함께

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기획된 특별한 주간으로, 총 6천 500여 명이 현장을 찾아 HD아트센터의 시작을 응원했다.

일주일 동안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곳곳에서 펼쳐졌다. 로비에서는 음악, 춤 등 청소년들의 끼로 가득찬 '로비 음악회'가 관람객을 맞이했고, 저녁이면 '도드림 콘서트'가 무대를 채우며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오케스트라 공연에서는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이 숨죽이며 연주에 몰입했고, 전시장에서는 관람객들이 한 작품 한 작품에 발걸음을 멈추며 작품 속 이야기를 감상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또한 영화관에는

반값 할인 이벤트 덕분에 평일 저녁에도 관객들이 꾸준히 몰려 활기를 더했다.

특히,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참여형 이벤트가 큰 호응을 얻었다. 로비 한편에 마련된 포토존 앞에서는 가족, 친구, 연인들이 차례로 기념 촬영을 하며 추억을 남겼고, 포토존 및 댓글 이벤트에는 총 3천500여명이 참여하는 등 아트센터의 새 출발을 응원하는 다양한 메시지가 이어졌다. 관람객들은 "HD아트센터라는 새로운 이름이 신선하고 기대된다"며 리뉴얼 소감도 전했다.



제3회 HD현대가족초대작품전

‘안전’을 담은 예술 : Have a safe Day!

‘드림워크’ 기간인 지난 6월 13일(금) HD아트센터 미술관에서 개막한 제 3회 HD현대가족초대작품전 ‘Have a safe Day!’이 6월 29일(일)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초대작품전은 HD현대의 숨은 작가들이 실력을 뽐내는 특별 전시로, HD아트센터가 HD현대 임직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지난 2023년에 첫 선을 보였다. 그룹 임직원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까지 참여할 수 있어 매년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올해는 HD현대중공업 안전통합경영실과 함께 ‘안전’이라는 주제로 회화, 사진, 도예 등 67명의 HD현대 사우 가족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됐다.

HD현대중공업 노진율 사장은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안전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이어 대상,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돼 관람객의 박수를 받았다.

수상작 소개



대상 - 소망

김현숙 씨 作, HD현대미포 선행도장부 이자산 선임매니저 모친

행복한 꿈과 희망을 싣고 가는 풍선을 안전모로 형상화해 안전 속에 꽃피우는 희망을 서정적이고 동화적으로 표현한 회화 작품.



우수상 - 안전

HD현대중공업

설계플랫폼혁신부

이채준 책임엔지니어 作

디지털 드로잉 작품으로, 한글로 ‘안전’을 안전모와 안전 띠로 형상화한 작품.



장려상 - 사고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HD현대중공업 설계운영부 손동수 책임엔지니어 作

단단해 보이는 재질이지만, 표면은 언제나 깨질 수 있다는 균열을 보여주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의 중요성을 내포한 도예 작품.

HD현대의 선박을 만드는 '진짜 멋있는 남자'



HD현대가 지난 공개한 디지털 광고 '진짜 멋있는 남자'가 누적 조회수 1천2백만 회를 훌쩍 넘기며 시청자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유쾌한 에피소드 속에 담긴 자부심

HD현대중공업이 지난 5월 30일(수) HD현대중공업 공식 유튜브 채널(@HD현대중공업)을 통해 새로운 조선 디지털 광고 6편을 공개했다. 총 6분 분량으로 제작된 이번 영상은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대형 선박'을 유쾌하고 재치 있는 에피소드로 풀어내며, '진짜 멋있는 남자'의 다채로운 모습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낸 것이 특징이다. 광고의 주인공(배우 김우빈)은 이름도, 직업도 공개되지 않은 인물이지만,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HD현대가 건조한 친환경 선박, 잠수함, 자율운항 시스템, 그리고 믿음직한 동료들이다. 특히 이번 광고는 HD현대가 글로벌 조선산업의 최전선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담는 동시에, 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구성원들의 가치를 재조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광고가 만든 공감과 응원의 물결

HD현대중공업은 이번 광고 론칭을 기념해 댓글 이벤트도 진행했다. 특히 멋진 남자 티셔츠와 잠수함 모양 보조배터리 등 광고의 내용이 잘 반영된 굿즈로 임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댓글에는 "김우빈도 멋있지만, 조선업 불모지에서 세계 1위 조선업을 만들어낸 모든 임직원 분들의 노력이 더욱 멋지다"라며 HD현대중공업에 응원을 보냈다. 이와 함께 "자녀가 광고를 보고 제게 엄지를 치켜세우네요. 자랑스러운 HD현대중공업" 등 사우들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조선업과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는 댓글

글들도 눈에 띄었다. 한 신입사원은 댓글로 "HD현대중공업이 기술력과 감성을 동시에 담아 전 세계에 보여주는 모습이 멋집니다! 저도 안전하고 즐거운 회사 생활을 하며 회사의 미래를 책임지는 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와 같이 당찬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11일(수) 점심시간, 진짜 멋있는 남자 김우빈 배우가 HD현대 GRC를 깜짝 방문했다. 광고 1천만뷰 달성을 기념해 직원들과의 소통 시간을 가진 것.

이날 행사는 "HD현대 선박을 타는 김우빈"이라고 소개하며 "많이 환영해주셔서 영화제에 와있는 것 같다. 시간내 주셔서 고맙다"라는 김우빈 배우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경품이 걸린 퀴즈 타임과 인기 댓글 발표, 포토 타임 등 30분간 이어진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임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GRC를 찾은 김우빈



HD현대오일뱅크의 신개념 홍보 예능 '오'늘도 '일'단 가봄



HD현대오일뱅크가 신개념 예능형 홍보 콘텐츠,
'오늘도 일단 가봄'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보였다.
직접 다양한 현장을 찾아가 브랜드 스토리를 전하는
이번 시리즈는 HD현대오일뱅크를 보다 친근하고
생동감 있게 소개하는 새로운 시도다.



현장에서 브랜드를 말하다

지난 5월, HD현대오일뱅크 유튜브 채널에 신규 콘텐츠 시리즈
'오늘도 일단 가봄'이 공개됐다.

'HD현대오일뱅크를 홍보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는 콘
셉트 아래, 이 시리즈는 2025 오네(O-NE) 슈퍼레이스 챔피언
십, 현대 N 페스티벌 등 다양한 현장을 임직원이 직접 찾아가 브
랜드 스토리와 기술력을 생동감 있게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리즈의 시작을 알린 티저 영상에서는 출연자 소개와 함께 시
청자의 흥미를 유도하고, 시리즈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했
다. 출연자 면접 형식을 활용해 콘텐츠의 취지를 소개하는 한편,
회사에 대한 지식을 퀴즈 형식으로 풀어내며 자연스럽게 HD현
대오일뱅크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어 공개된 1편에서는 HD현대오일뱅크가 7년 연속 단독 연료
공급사로 참여하는 국내 최대 모터스포츠 대회 '2025 오네(O-
NE)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현장을 찾았다. 출연진이 직접 레이
싱카에 탑승하고 관객과 소통하며 고급 휘발유 브랜드 '카젠'
의 성능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모터스포츠 특유의 박진감 넘치는 현장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브랜드를 알리는 HD현대오일뱅크의 모습이 영상
에 담겼다. 시청자들 역시 "카젠이 레이싱카에도 쓰이다니, 성
능 확실하네요." 등 긍정적인 댓글을 남기며 제품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여정

이번 시리즈는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서 HD현대오일뱅크의 다
양한 사업 영역을 대중에게 친근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춰 소개
하고 있다.

티저 영상 공개와 함께 진행된 이벤트에는 수백건이 넘는 댓글
이 달렸으며, 이 중 상당수가 사업장과 제품에 대한 궁금증을 나
타냈다. 이를 반영해 향후 에피소드에서는 대산공장, 주유소 등
HD현대오일뱅크의 핵심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생생
한 모습을 전할 예정이다.

단순한 홍보를 넘어 온·오프라인에서 진정성 있는 소통을 지향
하는 이번 콘텐츠는 HD현대오일뱅크의 브랜드 철학인 '진심을
주유합니다'를 자연스럽게 담아낸다. 앞으로 어떤 현장을, 어떤
시선으로 담아낼지 기대된다.

팬들과 함께 만드는 원정의 기록, HD원정응원단!



“울산 HD의 메인 스폰서가 누구인지 아세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만난 울산 HD 팬들에게 물었던 질문. HD현대를 알리기 위해 시작한 HD원정응원단 활동은 어느덧 울산 HD의 원정 팬들과 미국까지 함께하는 생생한 응원의 장이 됐다.

메인 스폰서 HD현대가 함께합니다!

HD원정응원단은 HD현대가 울산 HD 원정 팬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젝트다.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K리그 원정 경기를 찾아 팬들과 소통하고 울산 HD를 함께 응원하며 HD현대의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알리고 있다. 이 과정은 유튜브 ‘스튜디오 오 홀’ 채널의 HD원정응원단 시리즈에 생생하게 기록되고 있다. 시리즈는 “HD현대를 아세요?”라는 질문으로 시작된다. HD원정응원단은 강원, 인천, 포항, 수원, 제주 원정 경기를 돌아다니며 팬들에게 퀴즈를 낸다. 울산 HD의 메인 스폰서로서 HD현대 브랜드를 널리 알리기 위해 HD원정응원단은 수많은 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응원했다.

HD원정응원단의 스탬프 투어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됐다. 지난해 6월 30일(일)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총 7번의 경기마다 스탬프를 한 개씩 모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원정 경기에 올 때마다 스탬프를 모으고, SNS에 응원 콘텐츠를 활발히 게시한 원정 팬을 선정해 올해 미국에서 열린 FIFA 클럽 월드컵 참관 기회를 제공했다. 실제로 올해 3월, HD원정응원단은 미국 원정에 함께 할 팬 2명(이동호, 박수현)을 최종 선정해 HD현대 글로벌 R&D센터 사옥에 초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원정 응원

유튜브 ‘스튜디오 오 홀’ 채널에서는 미국으로 떠난 울산 HD FC를 응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공개하고 지난 6월에는 클럽 월드컵에 출전한 울산 HD 선수들을 위한 깜짝 응원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 영상에는 HD원정응원단이 올해 상반기 K리그1 국내 원정 경기를 돌며 팬들의 자필 응원 메시지를 축구공에 담는 모습과, 팬들의 목소리로 선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는 특별한 순간이 담겨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K리그1 경기 현장에서 만난 여러 팬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다큐멘터리 ‘10,000km와 HD원정응원단’도 공개됐다. 이 영상에는 울산 HD FC를 향한 팬들의 진심 어린 응원과 1만 km를 넘어 미국 무대에 오른 선수들을 향한 변함없는 애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외에도 바뀐 클럽 월드컵 시스템, 축구장 문화, 울산 HD FC와 관련된 다양한 퀴즈 토크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스튜디오 오 홀’ 채널을 통해 꾸준히 공개되고 있으며, 대회 이후에는 미국 원정기를 담은 추가 영상들도 순차적으로 업로드 될 예정이다.

HD원정응원단의 기록은 단순한 경기 응원을 넘어 울산 HD에 대한 팬들의 진심 어린 사랑을 담아내고 있다. 기업과 구단, 팬이 함께 만든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스폰서십을 넘어 브랜드와 팬들 사이의 진정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하루 만에 끝내는 조선·해운 공부!



왼쪽부터 엄성희 책임, 김성훈 책임

HD현대 엄성희 책임(아비커스 Business&Planning팀)과 김성훈 책임(HD한국조선해양 SD사업 운영부)이 지난 2년 동안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며 도서 집필에 매진했다. 그 결실로 『하루 만에 이해하는 조선·해운 산업』이 출간됐다.

이 책은 해운·조선 산업의 큰 흐름과 핵심 개념을 비전공자도 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입문서다. 전 세계 교역량의 80% 이상이 바닷길을 통해 오가고, 한국 경제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해운·조선 산업을 누구나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신입사원은 물론, 오랜 경력의 사우들에게도 산업을 새롭게 바라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떻게 집필을 시작하게 되었나?

산업 대중서 시리즈를 기획하던 출판사로부터 먼저 제안을 받았다. 처음에는 부담감이 컸지만, 조선·해운 산업의 내용을 다른 회사가 아닌 업계 최고인 우리가 집필한다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특히, 이 책이 조선 업계와 HD현대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다.

‘하루 만에 이해’라는 제목이 인상적이다

출판사에서는 투자자, 취업준비생, 업계 비전공자를 주요 독자로 설정해 ‘진짜 하루 만에 이해하는’이라는 표현을 추천했다. 우리는 취업준비생과 신입사원을 염두에 두고 제목을 확정했다. 최대한 가볍고 쉽게 읽히도록 집필해 배경지식이 없는 독자도 하루 안에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분량으로 구성했다.

공동 집필 과정은 어땠나?

서로 다른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과거 TF 업무를 함께 하며 호흡

을 맞춘 경험이 있어 견해 차이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강점을 잘 이해하고 있어 역할을 자연스럽게 분담하며 집필을 진행했다.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구성했나?

집필 초기부터 ‘쉽게 쓰자’를 원칙으로 삼았지만, 전문 분야를 쓰다 보면 어렵게 흘러가기 쉬웠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로의 원고를 교차 수정하며 가독성을 높였다. 또한 비전공자 편집자와 함께 최종 퇴고 과정에서 내용의 깊이와 범위를 조정하며 대중성을 높였다.

■ 사내 직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조선·해운 산업의 전체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비전공자나 저연차 직원은 물론, 오랜 경력을 가진 직원들도 일종의 복습삼아 읽어보면 유익할 것이다. 특히, 해운 산업의 내용도 상당 부분 다뤄 조선 외 전방 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 집필을 통해 얻은 개인적 소회는?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십수년을 근무하며 이해도가 높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이를 사실에 기반한 글로 표현하려고 하니 막히는 부분들이 꽤 많았다. 이를 다시 공부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선 분야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었고, 함께 일하는 선배, 동료, 후배 사우들의 노고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제로 슈거 식품, 먹어도 안전할까?

장 건강과 감미료의 숨겨진 이야기

글_서울아산병원

현대인 식습관의 중심, '제로 슈거'

최근 식품 시장에서 '제로 슈거'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설탕 대신 대체 감미료를 사용해 단맛은 유지하면서도 칼로리는 낮췄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들이 과연 우리 몸에 안전한지, 특히 장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제로 슈거'란 일반적으로 100g 또는 100ml당 당류 함량이 0.5g 미만인 제품을 의미하며, 설탕 대신 대체 감미료를 사용해 단맛을 낸다.

대체 감미료는 크게 천연 감미료와 인공 감미료로 나뉜다.

천연 감미료에는 스테비아, 알룰로스, 자일리

로스 등이 있으며, 인

공 감미료에는 사

카린,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아

세설팜 칼륨 등

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말티톨,

소비톨 등 당알

코올류가 오랫동안

안 다양한 식품에

사용되어 왔다.



무분별한 확산으로 안전성 논란

우리 사회는 현재 비만, 당뇨병, 고혈압 등 각종 대사 질환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저칼로리' 혹은 '무설탕'을 내세운 제품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 범위는 음료와 주류를 넘어 아이스크림, 커피, 과자, 간편식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제로 슈거 식품이 복통이나 설사와 같은 소화기 증상을 유발했다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그 안전성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우리 장에는 수조 개에 달하는 미생물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단순히 소화 기능에 국한되지 않고 면역 시스템, 대사 활동, 전신 질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다양한 감미료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무너뜨려 유해균의 증식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소화불량, 복부 팽만, 체중 증가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은 면역력 저하와도 직결되어 전반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다 섭취 시 각종 부작용 우려

말티톨이나 소비톨과 같은 당알코올류는 분해 및 흡수가 되지 않아 장내에서 발효되며 복통,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에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천연 감미료라고 해서 반드시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스테비아, 에리스리톨과 같은 천연 감미료 역시 과다 섭취 시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점차 늘고 있다.

임상 현장에서 염증성 장질환(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이나 만성 설사를 앓는 환자들을 접하다 보면, 제로 슈거 식품 섭취 이후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혈당에는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장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일부 연구는 감미료가 오히려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한 바 있다. 감미료가 신진대사를 교란시키고, '무설탕', '제로'라는 문구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안전감을 주어 과도한 섭취를 유도함으로써 총 칼로리 섭취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감미료와 심혈관계 질환과의 연관성을 증명한 연구도 있으며, 일부 감미료는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두통, 불안, 우울증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도 존재한다.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감미료를 체중 조절이나 당뇨 예방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는다.

보다 더 큰 문제는 설탕보다 수십~수만 배 강한 단맛을 내는 감미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단맛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고, 점차 더 강한 단맛을 찾게 되는 '단맛 중독'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감미료가 주로 가공식품에 사용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섭취량 조절과 건강한 식단 전환 필수

그렇다면 제로 슈거 식품을 반드시 피해야만 할까? 현실적으로 제로 슈거 식품은 이미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감미료나 색소 등 첨가물이 많은 가공 식품 섭취를 줄이고, 자연식 위주의 건강한 식단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제로 음료를 일주일에 한두 번 섭취하는 것과 매일 물처럼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 다를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품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건강한 식습관과 건강한 장은 결국 건강한 삶의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함께 일하는 우리, 서로의 온도가 됩니다.

상담사의 시선으로 바라본 조직 활성화의 시작점

글 _ HD현대중공업 최지혜 상담사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조직은 그저 일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는 이 공간은 기계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섬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얹혀져 있습니다. 일이 잘 되길 바라지만, 그 일을 더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고 어떻게 함께 머무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바우마이스터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단체에 소속되고 싶어 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직장이라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존재가 존중받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그 자체로 큰 에너지가 됩니다. '건강한 조직'은 단단한 목표와 전략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안의 사람들이 서로를 따뜻하게 연결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결국 조직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순간이 변화를 만듭니다.

얼마 전 상담실에 찾아온 한 직원은 잦은 대인관계의 피로 속에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괜히 내 생각을 말한다가 이상하게 보일까 봐요. 그냥 참고 넘기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그의 말에 담긴 외로움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조금씩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이런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팀장님께 처음으로 '오늘 좀 힘들었어요'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의외로 고개를 끄덕여 주시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큰일이 아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이 짧은 대화가 준 변화는 매우 컸습니다. 그 이후 그는 회의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말하기 시작했고 팀원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심리적 안전감이 조직의 온도를 높입니다.

하버드대 에드먼슨 교수는 '심리적 안전감'이 팀의 성과와 창의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해도 괜찮고, 때로는 실수해도 괜찮다는 분위기가 있을 때, 조직은 훨씬 더 유연하고 살아 있는 곳이 됩니다. 상담실에서 제가 자주 목격하는 것도 바로 이 '괜찮다는 느낌'에서 시작되는 작지만 큰 변화들입니다.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조직 전체의 온도를 높이는 실천이 됩니다.**

함께 만드는 분위기가 문화를 만듭니다.

조직의 진짜 힘은 누군가 혼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작은 말 한마디, 서로를 향한 작은 관심과 배려가 모여 온도를 만듭니다. 그 온도가 쌓이고 흐르며 결국 하나의 문화를 이룹니다. HD현대의 더 따뜻하고 단단한 내일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잇는 오늘의 말들이 내일의 희망이 되어 우리 곁에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옆 사람의 마음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 그것이 조직을 따뜻하게 만들고 서로가 함께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길일지 모릅니다.

일상의 실천 - '작은 대화에서 시작하기'

• 질문을 바꿔보세요 •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작은 질문 하나가 동료들
방어에서 탐색으로 옮깁니다.

• 가볍게 말 걸어 보세요 •

“요즘 어때요?”

관심은 조직문화 온도를
끌어올리는 시작입니다.

위로와 포용이 그리는 한국의 미래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 사람들은 이제 자극보다 위로를, 경쟁보다 다양성을 원한다. 귀여운 캐릭터와 감성 콘텐츠로 마음을 다독이는 '무해력'의 시대, 그리고 국경과 정체성을 넘나드는 '그라데이션 K'의 확장 속에서 한국은 감성과 포용의 힘으로 더 풍요롭고 역동적인 미래를 그려가고 있다.

1. 무해력: 작은 위로가 주는 커다란 변화

자극 대신 위로, 순수함의 힘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단순하고 해롭지 않은 것들에 끌린다. 귀엽고 부드러운 동물 캐릭터, 일상 속 치유계 콘텐츠, 아기자기한 소품 등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한 취향을 넘어, 현대인의 심리적 안정감을 충족시키는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누군가는 피곤한 하루 끝에 동물 영상으로 웃음을 찾고, 또 누군가는 소박한 꽃무늬 머그컵에서 일상의 온기를 느낀다. 이런 소소하지만 따뜻한 위로들이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치열한 일상에 작은 심표를 선물한다.

브랜드의 새로운 무기: 감성 자극

기업들은 이러한 무해력을 브랜드 전략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제품 패키지에 귀엽고 친근한 일러스트를 넣거나, 부드럽고 따뜻한 색감을 활용해 소비자의 감성을 공략한다.

또한, SNS를 통해 귀여운 캐릭터나 따뜻한 감성의 콘텐츠를 공유하며, 단순한 유행을 넘어 진정성 있는 소통의 수단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무해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 캠페인과 소셜미디어 챌린지는 소비자들에게 친근함과 안정감을 전달하고, 브랜드와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든다.

일상의 작은 위로가 만든 큰 변화

무해력은 단순한 귀여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경쟁과 스트레스가 일상이 된 사회 속에서, 무해한 존재들이 주는 위로는 마음에 따뜻한 불씨를 지피는 심표와도 같다. 소소한 위로는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서, 산업과 문화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감성적이고 따뜻한 디자인 요소가 제품의 매출을 견인하거나, 직장 내에서 작은 배려와 따뜻한 소통이 조직 문화를 건강하게 만든다.



2. 그라데이션 K: 다채로운 색으로 그려가는 한국의 미래

경계를 허무는 한류의 진화

K-팝, K-드라마, K-푸드 등으로 대표되는 한류는 이제 단순히 한국만의 문화가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음악, 드라마, 음식, 패션을 즐기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다국적 아티스트와의 협업, 다양한 언어로 제작된 콘텐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기획과 전략은 한류를 더욱 폭넓고 깊이 있게 발전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화적 경계는 자연스럽게 허물어지고, 전 세계인의 취향과 감성을 아우르는 새로운 형태의 한류가 만들어지고 있다.

한류는 이제 단순히 '한국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와 연결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가치 창출의 동력이 되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의 도약

한류의 확장은 단순히 문화 영역을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글로벌 시장과의 접점을 넓히면서 기업들은 다문화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직원들과 협업하는 문화를 장려하고 있다.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서도 글로벌 감각과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반영해, 전 세계 소비자들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외국인과 이주민을 포용하는 지역 커뮤니티와 사회적 네트워크도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교육, 복지, 문화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문화적 감수성을 반영한 프로그램과 지원이 강화되며, 한국은 점점 더 다양한 색을 품은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다문화 수용을 넘어, 포용과 존중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역동성을 만들어내며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포용과 다양성의 힘

그라데이션 K는 단일한 정체성을 넘어 다양한 색의 조화를 상징한다. 단순히 문화적 다양성의 확산을 넘어, 각기 다른 배경과 경험을 지닌 사람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힘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은 기업의 인사 정책과 조직문화, 사회적 연대, 일상 속 문화에서도 나타나며, 한국 사회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강조한다. 다양성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창의성과 혁신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서로 다른 관점과 배경이 만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이것이 산업 경쟁력과 글로벌 무대에서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간다. 앞으로 이러한 흐름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한국 사회를 더욱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들어갈 것이다. 그라데이션 K는 한국의 미래가 단일한 색으로 그려지지 않음을 상징한다. 다양한 색이 어우러져 더욱 아름답고 역동적인 모습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한국의 진정한 경쟁력과 잠재력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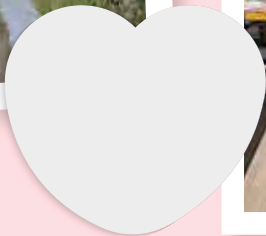
아프지 말라고,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침이면 쌍둥이 남매의 손을 잡고, 저녁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아이들 옆에 누웠다. 병든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아이들을 향해 달려간다.

엄마가 쓰러지면 아이들이 안마를 해주고, 아이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엄마는 다시 일어선다.

아픔과 사랑이 엉켜 있는 나날 속에서, 이 가족은 서로를 안고 오늘을 살아간다.



다시 일어서야 했던 이유

수영(가명, 43세)씨는 누구보다 부지런했다. 오래도록 짬뽕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았고, 손맛도 좋아 단골 손님이 많았다. 그렇게 일궈온 삶은 2016년, 쌍둥이 남매 연후(가명, 8세)와 연지(가명, 8세)가 태어나면서 잠시 멈추게 된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가게 문을 닫고 육아에 전념했지만, 가족의 생계는 생각보다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남편은 직장을 오래 유지하지 못했고, 잦은 이직으로 인해 생활비는 항상 바닥했다.

결국 엄마가 다시 나설 수밖에 없었다. 2020년, 대출을 받아 가게를 다시 열었고, 육아와 생계를 함께 짊어졌다. 가게 안의 작은 쪽방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장사를 했고, 밤이 되면 피곤에 절어 잠시 눈을 붙이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재기의 희망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며 손님은 끊겼고, 매출은 곤두박질쳤다. 매달 밀려오는 월세와 이자 고지서는 현실의 벽을 실감하게 했고, 그 사이 엄마의 몸은 조용히 무너져가고 있었다.

병든 몸으로 지켜낸 자리

끝없이 이어지는 피로와 불면,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 속에서 어느 날 수영씨는 황달 증세를 보였고, 병원에서 간경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병은 너무도 조용히, 그러나 깊고 단단하게 삶의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었다.

수영씨는 치료를 받으면서도 가게 문을 닫지 않았다. 병보다 더 두려웠던 것은 생계였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몸을 붙잡았다. 그러나 건강은 끝내 버텨주지 않았다. 2024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부채만 남긴 채 가게는 문을 닫았고, 그토록 애썼던 결혼 생활도 이혼으로 마침표를 찍게 된다.

이후 수영씨는 두 아이를 홀로 돌보며 병원과 집을 오가는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간경화는 응급 상황을 자주 불러오고, 병원은 간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지만, 수술비는 어림없는 현실이 그 가능성을 매번 달아버린다. 아이들에게만 큼은 '엄마가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엄마는 계속 버티는 중이다.

아이들이 건네는 따뜻한 위로

연후와 연지는 태어날 때부터 작고 연약한 존재였다. 2.1kg의 미숙아로 태어나 병원 신세를 많이 졌지만, 부모의 정성과 사랑 속에서 어느새 자라났고, 이제는 수영씨를 도와주는 작은 손길이 됐다.

누나인 연지는 동생보다 조금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늘 책임감을 가졌다. 아침이면 연후의 가방을 챙기고, 식사 시간엔 "꼭꼭 씹어 먹어야 해"라고 말하며 하나하나 챙긴다. 수영씨가 소파에 지쳐 누워 있으면, 두 남매는 조용히 다가와 등을 주물러주고, 다정하게 다리를 주무르기도 한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엄마 곁에 선다.

아이들은 아직 작고 여리지만,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어른스럽다. 수영씨는 그 따뜻한 손길에 매일 마음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낼 이유를 찾는다.

햇살을 기다리는 집

세 식구가 사는 집은 외할머니가 오래전부터 살아온 노후된 주택이다. 햇볕은 잘 들지 않고, 장마철이면 벽지 사이사이에 곰팡이가 피어나기 일쑤다. 엄마는 매일같이 곰팡이를 닦아내지만, 스며든 냄새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연지는 자기 방에서 자는 것을 무서워한다. 여름이 오기 전엔 꼭 이사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만, 당장 병원비조차 버거운 상황에서 집을 옮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병원 오가기를 반복하는 삶 속에서 기초생활수급비만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 됐다. 그래도 엄마는 아이들만큼은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고 마음을 다잡는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취약계층 아동 대상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프로그램)도 꾸준히 살펴보고, 아이들의 학교생활과 성장에 뒤처지지 않도록 온 힘을 쏟고 있다.

수영씨네 가족에게 미래는 아직 멀고, 불확실하다. 하지만 아이들의 손을 놓지 않고 오늘 하루를 건디는 수영씨, 조용히 숨을 고르듯 이어지는 일상 속엔, 언젠가 따뜻한 햇살이 비추기를 바라는 작지만 단단한 희망이 깃들어 있다. 그 작은 마음 하나가, 이 가족에게 다시 행복한 내일을 건널 수 있기를 바란다.

언젠가 한번은 울릉도

글&사진_ 여행작가 봄비(김혜민)

우리나라 동쪽 끝자락에 자리한 아늑하고 먼 섬, 울릉도. 흔히 '죽기 전에 한 번은 가봐야 할 섬'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지만, 말처럼 쉬운 여정은 아니다. 오로지 배로만 들어갈 수 있는 뱃길. 날씨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꼼짝없이 발이 묶인다. 그래서일까. 쉽게 닿을 수 없는 거리만큼 사람들의 동경은 더 깊어진다. 그럼에도 여전히 가야 하나고 묻는다면 "그럼에도 울릉도! 그런데도 울릉도!"라고 답하고 싶다. 절벽 위 아슬아슬하게 이어진 산책로, 질푸른 바다와 맞닿은 해안도로, 산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울퉁불퉁한 능선까지 마치 영화 '쥬라기 공원'의 한 장면 같기도 하다. 모든 순간이 아름다웠던 바로 그 섬, 울릉도로 떠나보자!

포항에서 시작하는 울릉도 여정!

구름 위를 걷는 롤러코스터, 스페이스 워크

울릉도까지 닿는 배편은 총 다섯 곳이 있다. 강릉항, 동해 묵호항, 울진 후포항 그리고 포항의 포항항과 영일만신항. 그중에서도 KTX로 바로 접근할 수 있고, 항구까지 무료 셔틀버스도 마련된 포항은 울릉도 여행의 가장 실용적인 출발점이다.

그 덕분에 자연스럽게 포항 여행까지 겹쳤다. 두 발은 이제 아찔한 롤러코스터 위에 올려져 있다. 포항항과도 접근성이 좋은 스페이스 워크는 '예술 위, 구름 위를 걸으며 마치 공간과 우주를 유영'한다는 주제로 지어진 총 333m 길이의 전망대다. 철제 계단이 허공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독특한 모양의 전망대는 하나의 예술이자, 또 다른 모험이다. 입장료가 무료이니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이더라도 꼭 도전해 보시길!

찰랑이는 바다를 보고 싶다면, 이가리 닻 전망대

동해안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전망대를 만나봤지만, 닻 모양의 전망대는 이곳이 처음이다. 닻을 바다를 오가던 어선들이 정박하던 곳이라는 역사적인 의미와 더불어 안전과 희망을 기원하는 상징이기도 하다. 게다가 닻의 끝부분 화살표가 향하는 곳은 이곳에서 251km 떨어진 독도. 즉 우리나라 국민들의 독도 수호의 염원까지도 이 닻에 담았다고 한다. 포항시 북구 청하면 이가리에 자리해 이름도 독특한 '이가리 닻 전망대'는 길이 102m, 높이 10m의 해안산책로로 중앙에 빨간 지붕과 그 너머에 드넓게 펼쳐지는 바다가 아름다운 곳.

이가리 닻 전망대





행남 해안산책로

울릉도에 닿다!

최고의 해안 절경을 자랑하는, 행남 해안산책로

포항에서 3시간의 항해 끝에 도착한 울릉도. 울릉도 여행에서 꼭 거치는 곳이 있다. 울릉도의 중심이자 시작점인 저동항과 도동항. 배가 오가는 항구이자 유명 맛집이 몰려 있는 먹거리 천국이기도 한 항구로, 이 두 항구를 연결해 주는 산책로도 있다. 바로 도동항에서 저동 촛대 바위까지 2.6km 이어지는 행남해안산책로가 그 주인공이다. 때로는 기암절벽과 자연 동굴도 지나고, 또 때로는 바위 사이를 통과하니 발걸음마다 절로 힐링이 되는 곳.

걸어서 갈 수 있는 섬 속의 섬, 관음도

우리나라에서 9번째로 큰 섬인 울릉도. 또 이 섬에 딸린 부속섬 중에 세 번째로 큰 섬인 관음도. 울릉도의 여러 부속섬 중에서 관음도를 선택한 이유 단순하다.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죽도, 독도와는 달리 섬과 섬을 잇는 다리가 생겨 도보로 탐방할 수 있기 때문. 1층 매표소에서 티켓을 구매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린 뒤 파란 다리를 건너면 둘레 약 800m의 무인도가 펼쳐진다. 관음도에 서면 울릉도는 물론이고, 울릉도 부속섬 중에 제일 큰 섬인 죽도까지 조망할 수 있다. 섬 안에서 또 다른 섬을 바라보는 묘미!

관음도



바람을 기다리는 절벽, 대풍감

예로부터 이곳에서는 새 배를 띄우기 전에 밧줄을 바위(대풍감)에 묶고 바람을 기다렸다고 한다. 바람이 닳을 휘게 할 만큼 강해지면 그제야 밧줄을 끊고 배를 띄웠고, 그 바람 덕분에 한달음에 육지까지 갈 수 있었다고. '바람을 기다리는 절벽(대풍감)'이라는 말은 거기서 유래되었다. 대풍감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로 향하기 위해 총 길이 304m, 약 6분이면 정상부까지 도달할 수 있는 태하 향목 모노레일에 탑승했다. 상부승강장에서 약 500m 정도 완만한 경사면을 따라 걷다 보면 왜 이곳이 '대한민국 10대 비경'인지 단번에 알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다. 울릉도의 북쪽 해안과 웅장한 주상절리 절벽까지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전망대! 바람이 세차게 분다. 누군가는 육지에 대한 열망만큼이나 이 바람이 간절했는지.

코끼리바위를 마주하다, 현포항 전망대

울릉도 해안에는 기묘한 형상의 바위들이 즐비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코끼리 바위. 코끼리의 오 돌토돌한 피복결과 주름, 코 부근에는 높이 10m의 아치형 해식동굴까지 있어 정말로 코끼리가 돌이 되어 굳은 게 아닐지 의심이 들 정도. 이 코끼리바위를 감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요즘은 프리 다이빙 스팟으로 알려져 바위 근처에서 수영하며 관람도 가능하지만,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유람선을 이용하는 것. 그마저도 귀찮다면 현포항 전망대는 어떨까? 대풍감에서 굽이굽이 고갯길을 지나 현포항으로 내려가는 길에 자리한 현포항 전망대는 탁 트인 바다를 볼 수 있는 데다 입장료가 없어 유람선을 타지 않아도 되는 좋은 대안이다.



남서일몰전망대

비 오는 날엔 봉래폭포

비줄기가 굵어졌다. 차라리 잘 됐다 싶어 저동항에서 2km 떨어진 곳에 자리한 봉래폭포로 향했다. 주차장에서 내려 바로 폭포를 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다면 애뜻함도 덜하지 않았을까? 봉래폭포로 향하는 길엔 꽤 울창한 삼나무 숲이 자리한다. 숲을 벗 삼아 20분 정도 걸으면 그 끝자락에 3단으로 떨어지는 30m 높이의 폭포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 수량이 풍부해 1년 내내 흐르는 봉래폭포는 특히 비 오는 날엔 더욱더 웅장하다. 시원한 물줄기 앞에 서면 세상의 모든 피로가 씻기는 기분.



코끼리 바위

봉래폭포



하루의 끝, 남서일몰전망대

이른 아침 일출을 볼 자신이 없다면 일몰은 꼭 챙기자. 울릉도의 장점은 사방이 뚫려 있는 섬이다 보니 서쪽 어디에 가든 탁 트인 일몰을 볼 수 있다는 것! 그중 우리의 선택은 망향봉 독도전망대, 저동리 내수전망대와 함께 대표적인 일몰 전망대인 남서일몰전망대.

힘겹게 모노레일을 타고 해발 150m 산을 5분 정도 오른다. 모노레일 바로 옆에는 산책로가 마련되어 있는데 걸어 올라갈 자신은 없다. 상부 승강장에 내려 또 5분 정도 오솔길을 따라 걸어가면 그 끝에 탁 트인 전망대가 나온다. 그리고 전망대 바로 오른쪽에 계단이 있는데 여기서 일몰을 바라보는 것이 핵심. 하루의 마지막 햇살이 바다 위로 부서질 때 그제야 울릉도에 온 것이 절로 실감 난다. 이토록 아름다운 울릉도라니!

이쯤 하면 죽기 전에 한번은 꼭 가볼 만한 곳 아닐까?

눈 떠보니 신입사원



웹툰 몰아보기

Ep.7 혁신의 향로를 개척하다!

드디어 마지막 미션을 맡게 된 인중현.

오랜 회사 생활을 통해 HD현대중공업의 미래 먹거리에 누구보다 깊이 고민해온 그는, 이제 회사의 미래를 이끌 핵심 아이템이 무엇이 될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심한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지난 이야기

세 번의 미션 끝에 마침내 마지막 과제에 도전하는 인중현. 과연 그는 이 미션을 완수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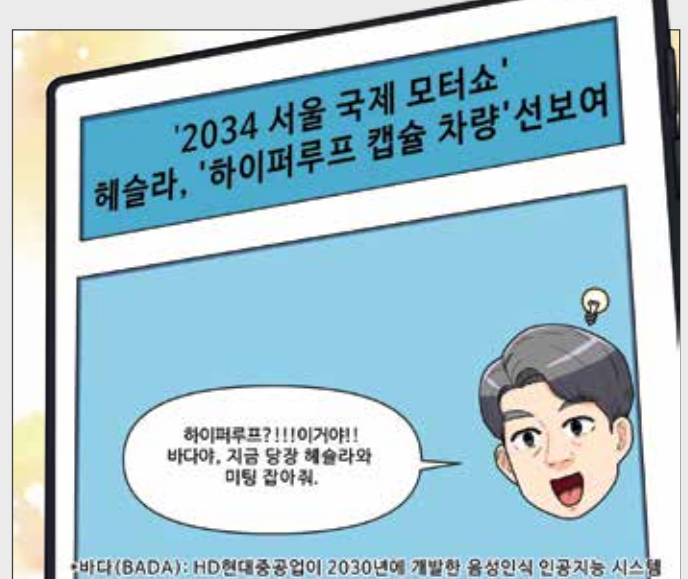




HD현대중공업은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낸 3D프린팅 기술과 정밀한 작업이 가능해진 AI 기계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며 새로운 일터를 만들어갔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



'2034 서울 국제 모터쇼' 헤슬라, '하이퍼루프 캡슐 차량' 선보여

하이퍼루프?!!!이거야! 바다야, 지금 당장 헤슬라와 미팅 잡아줘.

*바다(BADA): HD현대중공업이 2030년에 개발한 융성인식 인공지능 시스템

눈 떠보니 신입사원

Ep.8 세상을 바꾸는 혁신

빠른 추진력과 명확한 결단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끌게 된 인중현.

과연 그는 마지막 미션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까?







당신의 안전에 투표하세요!

영상은 여기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Work _ 작업·업무 분야

1위



안전송! - 건조2부 김윤곤 선임매니저

2위



안전의 시작 - 도장1부 정경훈 책임매니저

Home _ 일상생활 분야

1위



우리가족 안전 - 선실생산부 송현 책임매니저

2위



아빠와 딸의 안전한 하루! - 안전기획부 심혁준 조장

Yes _ 기타 안전 관련 분야

1위



안전의 기본은 정리정돈입니다 - 의장1부 박재하 매니저

2위



5S 활동은 안전의 시작 - 의장3부 정귀성 책임매니저

HD현대삼호가 '슬기로운 작업·생활안전'을 주제로 사내 근로자 및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2025년 안전 사진·영상 공모전을 실시했다. 개인(Work, Home, Yes, Global) 및 단체(우작소) 분야별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몇 점의 작품이 출품돼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닌텐도 스위치, 갤럭시 팻 등 푸짐한 경품이 주어졌다.

개인

Global _ 외국인 근로자 분야

1위



폰보다 앞을 봐요, 안전은 눈앞에! 현대캐리어솔루션 딜바 사원

2위



신호수들의 안전다짐! 건호이엔지 카트리 사원

단체

우작소 _ 우리팀 안전작업을 소개합니다

금상 S1 band 안전 S1밴드(사내동아리)

은상1 안전영상을 소개합니다 안전기획부 생산안전팀

은상2 우.작.소 의장1부 전장과

금상



은상1



여러분 이동 중에는 넘어지거나 부딪힐 위험이 있어

은상2



여름호 QUIZ

각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QUIZ

1

HD000000은 임직원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학급 친구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회사와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소개하는 특별한 행사다.

2

HD현대는 선박 도장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00(가상현실) 기반 도장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현장 교육에 본격 도입했다.

3

지난 5월 28일(수)부터 나흘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국내 최대 해양 방위 산업 전문 전시회 00000 2025에 HD현대가 참가했다.



지난 호 정답

① SMR ② LNG ③ 글로벌 디지털 센터

퀴즈 응모 방법

퀴즈의 정답을 8월 29일(금)까지 QR코드(또는 하단 링크) 접속 후 작성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https://forms.gle/b3BqcP4tgP4jUVot6>

※ 회사명, 부서, 이름 필수 입력! 당첨된 사우에게 상품 수령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2025년 겨울호 퀴즈 당첨자 선정

치킨 기프티콘(2만원권)

장재명 HD현대중공업 도장2부
남수언 HD현대미포 생산설비솔루션부
이지호 HD현대삼호 선각기술설계부
이상욱 HD현대마린솔루션 디지털신사업추진부
임준영 HD현대인프라코어 엔진품질보증팀
김대복 HD현대삼호 탑재팀
문진환 HD한국조선해양 스마트워크팀
전승해 HD현대중공업 선장설계부
안태경 HD현대마린솔루션 ISP추진과
정서영 HD현대사이트솔루션 PMO팀

커피 기프티콘(1만원권)

김민철 HD한국조선해양 HR정보팀
박성진 HD현대사이트솔루션 펌프밸브개발팀
남두일 HD현대미포 도장부
서홍일 HD현대중공업 특수선의장생산1부
강진녀 HD현대사이트솔루션 산업차량구매팀
박격포 HD현대중공업 성능평가연구실
강재현 HD현대사이트솔루션 제어솔루션개발팀
곽정민 HD현대중공업 기본설계2부
조현배 HD한국조선해양 자산개발팀
안준성 HD현대중공업 의장3부

박세원 HD현대삼호 건조2부
홍성철 HD현대인프라코어 부품검사1직
함상원 HD한국조선해양 SD원가팀
박상하 HD현대중공업 해양공사1부
이은성 HD현대사이트솔루션 구조연구팀
박서현 HD현대건설기계 AM영업팀
진현웅 HD현대일렉트릭 품질관리1부
김신희 HD현대사이트솔루션 서비스플랫폼개발팀
허난경 HD현대일렉트릭 기술경영부
이용운 HD현대중공업 건조기술기획부

동료들과 함께 한 봄나들이

“회사 사람들과 봄을 즐겨 봄봄봄”



HD현대마린솔루션
김소린 매니저(마린스마트케어부)

우리 회사는 MZ세대(1980년생~2010년생)가 83%를 차지할 만큼 젊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가진 회사다. 젊은 직원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자연스럽게 세대 간, 부서 간 소통의 필요성도 커졌는데, 이를 위해 우리 회사에서는 CA(Change Agent, 조직별 변화관리자)와 함께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과 행사를 적극적으로 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계절마다 즐길 수 있는 봄봄봄 나들이는 직원들 사이에서 늘 기대를 모으는 인기 행사라, 동료분들에게 소문만 들었을 때도 꼭 한 번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준비된 3가지 코스 중 내가 선택한 코스는 서울숲 산책. 혼자 가기는 조금 민망해서 입사 동기 몇 명을 설득해 같이 신청했다.

그날, 오후 3시에 퇴근하고 서울숲으로 향하는 길은 이미 다들 들뜬 분위기였다. 도착하자마자 진행된 건 2인 1조 팀 짜기.



대학교 미팅처럼 소지품을 선택한 사람끼리 랜덤으로 팀이 짜였다. 평소 친하지 않았던 분들과 자연스럽게 섞이게 하려는 배려 같았다. 나는 검정색 스마트워치를 든 KAM영업부 신재훈 선임님과 짝이 되었다.

서울숲에서의 첫 미션은 보물찾기 게임. 같이 팀이 된 선임님은 정말 대단했다. 그냥 천천히 산책하듯 움직였는데도 보물을 다 찾아냈다. 이렇게 예리한 관찰력을 가져야 영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걸까? 덕분에 우리 팀은 준비된 보물을 다 찾아내며 1등을 차지했다. 그리고 상품은 무려 영화 관람권! 이 후기를 빌려 선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보물찾기가 끝난 후에는 다같이 서울숲을 산책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팀을 짜고, 미션을 하면서 조금 가까워졌던 덕분인지 더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특히 각자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영업, 연구 등 평소 궁금했던 부서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풀 수 있었다. 처음엔 스마트케어 부서와는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 이리저리 유기적으로 맞닿아 있다는 것도 새롭게 느꼈다.

산책을 마치고 다 같이 먹은 저녁도 정말 즐거웠다. 맛있는 카이센동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야구나 취미 등 가벼운 대화도 많아서 정말 많이 웃는 시간이었다.

이번 봄봄봄 나들이를 통해 회사 밖에서도 동료들과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새삼 느꼈다. 워낙 바쁘게 돌아가는 회사 생활 속에서 이렇게 숨을 돌리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정말 고맙게 느껴졌다. 다음 번 CA 활동도 꼭 참여할 예정이다. 준비해주신 CA팀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 이런 웃음과 소통의 자리가 더 자주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회사에서 새롭게 만나는 봄, 참 좋은 하루였다고 생각한다.)



HD현대가 만든 프리미엄 연료첨가제
현대엑스티어 **α** **알파**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 오픈

스토어 바로가기

